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적당한 각도와 결정의 밀도〉 과정기록집

여행 과정

나를 움직이는 각도·속도·밀도를

찾으며 관찰·질문·사유를 했던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적당한 각도와 결정의 밀도〉 과정기록집

어린이 과정

나를 움직이는 각도·속도·밀도를
찾으며 관찰·질문·사유를 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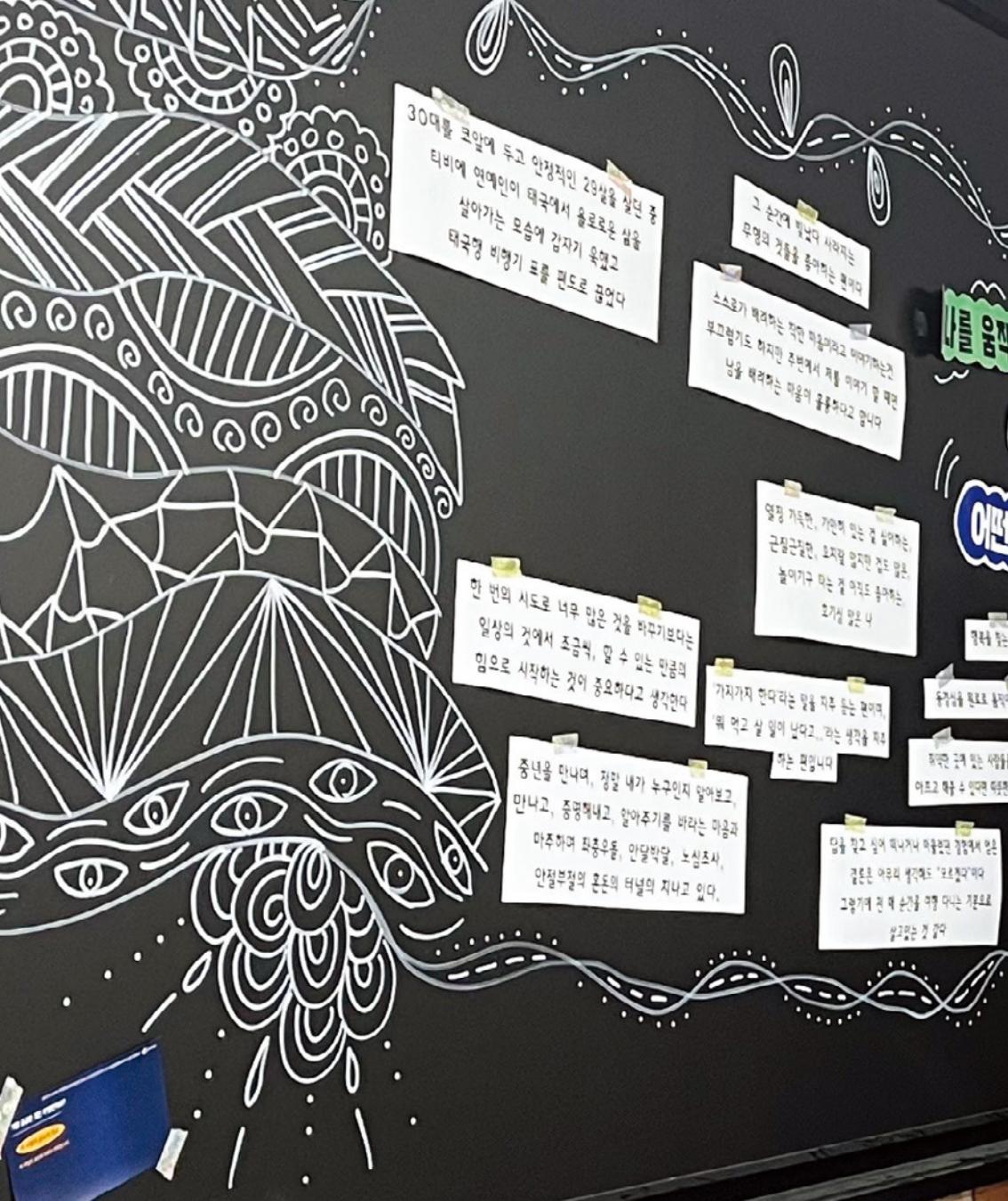
‘દુર્ગા’ સૂર્યાંગ
‘દુર્ગા’ દાયક



8:6

고
기

현대문화재단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30대를 코앞에 두고 안정적인 29살을 살던 중
티비에 연예인이 태국에서 유클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갑자기 웃었고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판도로 끊었다

그 순간에 빛났다 사라지는
무명의 것들을 좋아하는 펠미다

소소한 기쁨에는 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끄럼기도 하지만 주변에서 저를 이야기 할 때면
남을 해리하는 마음이 품종하다고 합니다

열정 가득한, 기한적 있는 걸 들여놓는
근질근질한, 흐릿한 말지만 것도 많은
놀이기구 같은 걸 아직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나

한 번의 시도로 너무 많은 것을 하루기보다는
일상의 것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의
임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자기자 한마디는 말을 지우는 펠미다,
'뭐 먹고 살 일이 남았고...'라는 생각을 지우
하는 펠미다

중년을 만나며, 점점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만나고, 증명해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마주하며 좌충우돌, 안달방달, 노심초사,
안절부절의 혼돈의 터널의 지나고 있다.

말을 찾고 싶어 먹거나 아니면 간경계에 걸친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다'이다
그렇기에 전 대 손전을 아끼는 거친으로
살고자는 것 같아

나쁜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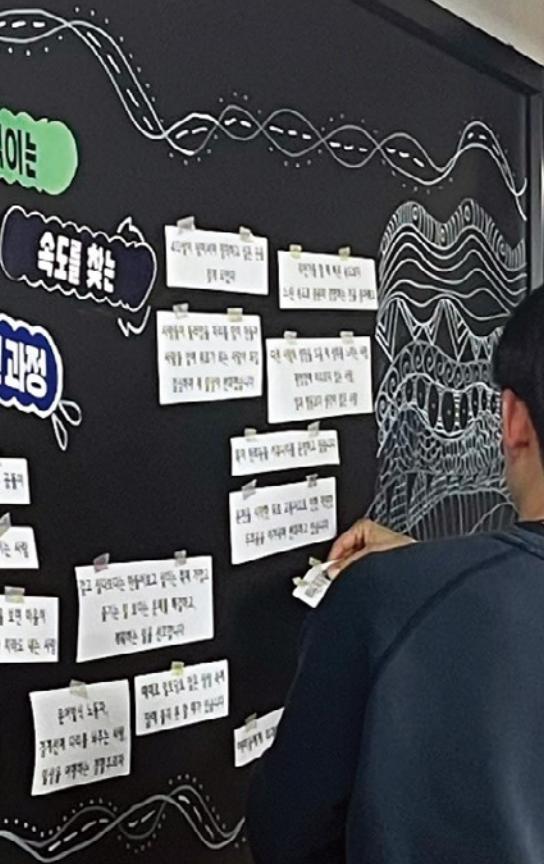
에쁜

행복을 찾는

우울증을 찾도록 노력하는

죽어온 고개 있는 사람들은

아프고 아파 누워다락 위험





봄 땅의 길도!

< 그들의 이야기? >

강남의 연결

자아설정
연결

↳ 과정 그들? Who?

죽의 연결
무지개와
인생의 연결

장미꽃과 자아의 연결

안전의 연결

생존의 연결



혈연의 연결

가족 친구의 연결

장미꽃과 자아의 연결
마음의

행복의 연결

슬픔의

장미꽃과 자아의 연결
소중의 연결

장미꽃과 자아의 연결

Prologue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나요?

일상의 작고 큰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나름대로
상상하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방식이 나름대로 문화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춘천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은
'직업인'으로의 '문화기획자'만이 아닌, 나만의 기준과 관점으로 일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불편하고 불안한 시대에 문화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근육을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어갑니다.
관찰하고,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나의 감각을 발견하고, 어떤 것의 이면을 들춰보고,
비틀어보며 나의 일상, 나의 지역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 정체성을 지닌 동행자가 함께하는 이곳으로
나를 이끄는 질문에 몸을 맡겨볼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Contents



들어가며 10p



춘천형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이란? 12p



세부과정 소개 19p

'어떤 과정' 스케치 28p



참가자 이야기 34p

'어떤 과정'을 마무리하며 146p

들어가며

“

40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반려 달팽이부터 삶의 귀찮음까지, 교통 정책부터 자살까지 매시간 새로운 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더해가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할 수 없이, 거의 모든 면접을 예정한 시간을 넘기며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심사라는 딱딱한 자리에서 만나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또 그 짧은 시간에 함께 울컥하기도 하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4달, 앞으로 함께 할 시간에는 또 어떤 시간이 웃음과 눈물로 채워질지 기대됩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본적인 '메뉴(커리큘럼)'가 있지만, 함께해주시는 분들이 준비해주시는 '재료(필요, 질문, 요청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주가 가능합니다. 2주 차에 함께 할 웰컴 파티도, 과정의 끝에 함께 할 2박 3일 워크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성도도 신선도도 묻지도 따지지 도 말고 더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게 된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에 15명을 목표로 기획되었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0명으로 확대했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25명까지 정원을 늘렸음에도 지원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분들만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위적이고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를 상상하시는 분들보다는, 개인적이고 편협한 변화에 대한 욕망을 지난 분들을,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새로 시작하시거나 잠시 멈춰 답을 찾고 계신 분들을 먼저 모시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함께 하실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줄 알고 그런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맞춤과정'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셔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기본과정 참여자 그룹면접심의 선정결과 심의위원 총평 중에서(2023.4.21.)

“

춘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지닌 참가자분들을 뵙게 되어 지역의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경험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 주변을 살피는 시각을 전해주신 참가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본과정이 아닌 맞춤과정인 관계로 모호한 자기 탐구나 아직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하지 못한 분들을 선정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맞춤과정은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려는 구상을 지닌 분들을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경력이나 이력보다 뚜렷하게 자신의 방향성을 지니고 이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것을 실현하시려는 분들로, 면접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신 분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맞춤과정 참여자 그룹면접심의 선정결과 심의위원 총평 중에서(2023. 8. 2.)

“각자를 움직였던 어떤 과정”

패키지 여행보다는 한 달 살기처럼
TV 드라마보다는 유튜브처럼
계획 세우기보다는 시 쓰기처럼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 정체성을 지닌 동행자가 함께하는 이곳에서
회차별, 단계별로 나아가기보다는, ‘나로부터 시작된 질문’에 충분히 다다르기 위한
작은 사건과 시간이 모여 전체 과정을 이루기를 바라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는 어떤 과정>이라 불리우며
각자가 찾아간 사유와 관찰의 시간이 남긴 흔적들을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교육 및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춘천,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22년 12월 「2023~202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지역주관기관) 지정 공모」
소식을 확인하고, 춘천문화재단은 공모에 도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문화인력을 발견하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
하여 주도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일거리를 만드는 문화인력의 성장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지역문화주체의
양성·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개인의 직업 전문성을 넘어
도시 차원의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주체 발굴에 집중하고
문화인력이 자기활동 욕구를 바탕으로 지역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기반으로
1년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춘천형 과정 진행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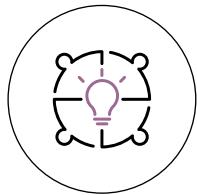
춘천은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일상에,
지역의 문화적 사건을 만드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춘천형 문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기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을 찾고 활동력을 지역과 연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주체의 등장	2012	지역문화아카데미 스터디투어
	2012 - 2013	문화이모작 지식실행공동체
	2013 - 2019	일당백 프로젝트
	2014	문화예술지원사업 기획공모 : 옆집청년 페스티벌
	2015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2015	플라타너스 거리 시민참여형 페스티벌 <무한청춘 페스티벌>

전문화 및 고도화	2016 - 2019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무한청춘 페스티벌>
	2016	지역문화아카데미<도시문화학교, 창작공방>
	2017 - 2018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뛸, 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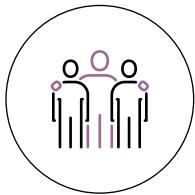
활동 영역 세분화	2020 -	춘천문화도시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2020	전환문화상상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협력 운영 <봄의 도시 춘천이 묻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2020 -	2020	춘천 태.세.전.환 [방구석 ○○○]
	2020 -	당신의 그림을 빌려주세요
	2020 -	생활문화매개자
	2020 -	아카데미 막
	2020	문화예술단체 활력 찾기 라운드테이블
	2021 -	일당백 리턴즈
	2021 -	도시편집자
	2022 -	전시기획자 양성사업
	2022 -	로컬에-딘터
	2022 -	디자인 패스파인더
	2022 -	도시비틀즈, 생각의 탄생
	2022 -	문화·예술분야 조직 성장지원프로젝트 <내일도 춘천>

“서식지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10년의 움직임, 그리고 다시 앞으로의 10년을 상상합니다”



지역문화주체의
양성과 지원으로

고유의 전문성 확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적
사건을 함께 만들어 갈

문화인력 밭굴



문화인력들이 자기활동을 욕구로
지역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환경 마련



문화주체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 마련

지역문화전문인력이 각자의 방향성과 전문성으로 지역문화를 탐구하고
문화현장에서 활동을 만들어가는 환경 구축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자기정체성 탐구

나로부터 출발한 자기감각으로 지역의 현안, 시대이슈와 호흡하며 문화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실행 기반의 활동 기획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진행



현장경험을 통한 전문성 고도화와 자리매김

문화현장에서 직업적인 전문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장 실무경험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확장해가는 시간 마련

<적당한 각도와 결정의 밀도>라는 과정명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업, 익숙하지만 낯선 단어들로 구성되어있는 이 사업은 “어떤 과정”이 되기를 바랐을까요?

참여대상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문화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를 일과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 ◆ 하루 24시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문화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과 연결되어있다.
- ◆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다양한 문화적 방법론으로 접근한 적이 있다.
- ◆ 문화적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고 관점을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 ◆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지역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전지구적인 차원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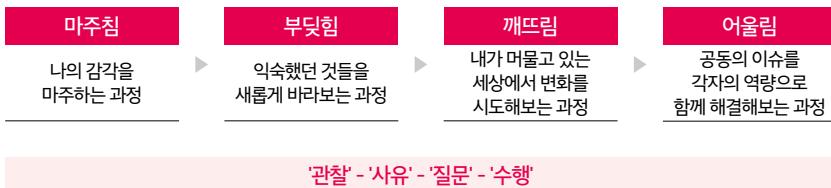
추진방향

슬로건	지역을 문화로 깨우는 적당한 각도와 결정의 밀도		
미션	자기 방향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지역문화인력 주체 발굴 및 성장 지원		
지역특성 인력수요	자신의 감수성과 활동력으로 시대와 지역의 이슈를 해석하고 일상과 직업활동에서 지속가능한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키워드	감수성	활동력	전문성
교육방향 운영전략	문화주체 전문역량 강화 일과 삶에 대한 별상의 전환으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시대적 흐름과 호흡하는 효과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문화인력이 지역과 관계 맺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역할을 주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역량 개발과 축적	
양성인력 성장목표	나로부터 출발한 질문을 자기감각으로 지역의 현안, 시대이슈와 호흡하며 문화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실행 기반의 활동 기획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냄	지역에 특화된 전문성과 실무 역량으로 자기의 필요와 쓸모를 만들고 쓰임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 지역문화 현장과 자신의 삶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 간	
성과 (2023~2025)	6개 영역, 30개 프로젝트 진행	3년 이내, 강원권역 문화주체 300명 발굴	지역문화를 바꾸는 6개의 활동 카테고리 구축

과정단계

존재감을 감각하고 질문과 수행을 통해 자신을 제대로 마주해보는 과정

과정별 진행단계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장에서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지지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초기 설계했습니다.

연차별 중점사안

권역형	1차년도(2023)	2차년도(2024)	3차년도(2025)
	강원권 재단 실무자 역량강화 강원권 지역문화재단 실무자 대상 지역문화현장의 활동력, 전문성 강화 교육 및 문화인력양성과정 설계 지원	강원권 문화인력 발굴 및 역량강화 강원권 문화인력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각 도시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무대를 강원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험 지원	[기본과정 + 맞춤과정] 춘천형 문화인력 양성 교육과정 지역문화 기본교육과정과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 ※연차별 참여단위 확장·고도화, 강원권역 문화인력 수강 가능

추진 로드맵

▣ 기간: 2023 ~ 2027 (3+2년 플랜)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 기간: 2023~2025

단계	형성 및 실행	확대	다시 준비
내용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정 고도화 및 활동 지원	성장지원 프로젝트 운영 (별도 사업 신설)
	수료자 문화현장 연계 및 관리	지역문화전문인력 공동협업 프로젝트 기획 운영	현장 연계 및 협업 파트너 지원
	지역 문화주체 존재와 활동 발신 (임팩트 측정, 콘텐츠 제작 등)	3년간 활동실적과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인력 성장생태계 연구와 후속대책 마련	활동 인력별 임팩트 측정과 관리, 활동내용과 성과 발신
시기	2023-2024	2025	2026-2027

※ 연차별 목표설정 기반 계획수립, 세부 추진 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본과정 ♦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고

맞춤과정 ◆

몸빵이라는 경험을 통해 나의 수행의 방식과 결과들을 만나가는

자기방향성(각도)과 정체성(밀도)을 찾아가는 시간

적당한 각도

- ▲ 적당한: 정도에 알맞다
- ▲ 각도: 생각의 방향이나 관점

결정의 밀도

- ▲ 결정: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분자와 원자가 일정하게 모여 배열을 이룬 것
- ▲ 밀도: 빽빽이 들어선 정도,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정도

세부과정

기본과정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는 어떤 과정>

에서는 문화현장에서 자기정체성과 주도성으로 활동하기 위한 근육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찰하고,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의 일상과 지역을 어떻게 다시 바라보게 될까요?

나로부터 출발한 자기감각으로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25명의 참여자들은
매주 만나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각자의 고민에 집중해보고,
0.0000018도라도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하루 5초 수행의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기획자로서의 스킬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일상에서 문화적 사건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고, 기준에 가지고 있던 그릇에 무언가를 잔뜩 채워 넣기보다는
나의 그릇의 모양과 재질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새 그릇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추진 과정

구분	내용
특강 및 멘토링	♦ 나로부터 출발한 질문으로 일상과 지역을 들여다보는 과정 ♦ 문화적 속성을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로 사유·질문·관찰하며 기획자로서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
현장탐방	♦ 도시 경계 너머 공동의 관심사로 사람과 장소를 만나는 현장탐방
과정공유회	♦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공유하는 과정

주요 재료

오감 밖의 관찰	하염없는 흔들림	문화적 삶을 위한 질문	더듬거리며 도시를 읽어보기
몸으로 전하는 에너지 발산 (나의 시간을 축적한 몸) 허의 지향과 육구 탐구 (남상 위에서 발견하는 지향점) 유튜브 알고리즘에 담긴 나 (나의 취향을 관리하는 저장소) 서재에서 발견한 인어 채집 (나를 분명하게 또는 투명하게 하는 언어) 미간의 주름 측정 (일상에서 마주한 문제들의 연관성)	당신 없이 못 살아 (각자의 크고 작은 중독과 집착) 늑대가 나타났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과 두려움) 쓸데 있는 것만 쫓는 사냥 (무기자하다 여겨지게 하는 상황) 오늘의 남이 내일도 남일까 (관계의 차이를 가르는 기준) 문화적이지 않은 삶도 있나 (나의 일상에서 발견하는 문화적 삶)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문화적 몸 만들기 (노동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몸 만들기) 원수를 꼬시는 디자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꼬시고 함께 놀기) 데시벨과 해르츠 측정 (나의 질문이 누구에게 합해지는지 살펴보기) 문화기획 둘아보기 (동시대의 문화기획 역할 찾기) 수행 조건 찾기 (일상에서 수행하기 위한 용기 획득하기)	힐끗힐끗 도시를 눈치보는 지혜 (도시문제 살펴보기) 슬렁슬렁 나와 도시 연결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팔랑팔랑 지역 자원 발견 (필요한 자원 모으기)

교육내용

회차	대주제	추진과정	시수	일시	비고
1	오감 밖의 관찰	몸으로 전하는 에너지 발산 (나의 시간을 축적한 몸)	3	4. 27.(목)	신청서 문장 발췌 참가자 1분 소개, 바디퍼커션, 멘토 청문회, 2회차 팀 구성 회의
2		허의 지향과 욕구 탐구 (법상 위에서 발견하는 지향점)	3	5. 4.(목)	31개 질문 1명 당 3명을 알아가는 시간, 음식 만들기, 한 귀로 훌리는 기획서 피드백반
3	문화적 삶을 위한 질문	내가 먼저 즐거운 문화기획을 위한 과정 사유하기	3	5. 11.(목)	춘천보다 내가 먼저 즐거운 문화기획을 위한 열 두 개의 질문 특강(주성진 멘토), 과정 상호 논의
4	오감 밖의 관찰	유튜브 알고리즘에 담긴 나 & 서재에서 발견한 언어 채집 (나의 취향을 관리하는 저장소)	3	5. 18.(목)	각자의 취향을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프로그램
5		미간의 주름 측정 (일상에서 마주한 문제들의 연관성 탐구)	3	5. 25.(목)	일상에서 마주한 문제들의 연관성 탐구 멘토링 ※3분반 멘토링 시작
6	문화적 삶을 위한 질문	다른 각도, 다른 시선으로 비라보며 일상을 사유하고 관찰하고 질문하기	3	6. 1.(목)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본 경험에 대한 사례 특강 (김월식 멘토), 상호 공유
7	하염없는 혼들림	당신 없이 못 살아 (각자의 크고 작은 중독과 집착)	3	6. 8.(목)	각자가 지니고 있는 중독과 집착에 대한 사유와 관찰
8	하염없는 혼들림	늑대가 나타났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과 두려움)	3	6. 15.(목)	기획자로서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심으로 생각을 더하는 상호 멘토링
9	문화적 삶을 위한 질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담은 기획	4	6. 22.(목)	팀 멘토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공유 특강, 14회차 현장팀방 안내
10		수행조건 찾기 I (일상에서 수행하기 위한 용기 획득하기)	4	6. 29.(목)	멘토반별 자율 멘토링
11		수행조건 찾기 II (일상에서 수행하기 위한 용기 획득하기)	4	7. 6.(목)	멘토반별 자율 멘토링
12		수행조건 찾기 III (일상에서 수행하기 위한 용기 획득하기)	3	7. 13.(목)	멘토반별 자율 멘토링
13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았던 기본과정 공유회		3	7. 20.(목)	25명의 참여자 12회차의 만남 복기 및 공유
14	더듬거리며 도시를 읽어 보기	힐끗힐끗 도시를 눈치보는 지혜 (도시문제 살펴보기)	4	8. 4.(금) ~ 8. 6.(일)	현장팀방 운영, 관찰·사유·질문을 하며 도시 읽기, 특강(고윤정 센터장·류성호 감독) 운영 *영도 스터디투어
	시수 총계		46		

기본과정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질문

질문①

Q

**자고 일어났더니 3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일을 하면서 생활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돈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이후 다양한 형태의 경력이 된다.
당신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②

Q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었다!**

1,000만이 보는 채널 운영자로서 하고 싶은 콘텐츠를 마음껏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가?

질문③

Q

자고 일어났더니 당신 통장에 3억이 꽂혀있다!

그런데 동시에 남은 생이 3일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3억을 3일 동안,
나만을 위해 써야 한다면, 당신은 3일과 3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질문④

Q

자고 일어났더니 당신이 지지율 98%로 춘천시장에 당선됐다.

OO 대기업 회장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당신이 춘천에서 첫 번째로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질문⑤

Q

자고 일어났더니 요술램프 지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세 가지 소원을 합쳐 하나의 소원만을 들어줄 것이라고 한다.
세상 모든 문제 중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세상의 오만가지 문제 중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당신은 5개의 질문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나요?

맞춤과정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은 그런 과정 - 몸빵의 밀도>

에서는 수행을 통해 내가 발 디딘 곳에서 자신의 서사를 해석해가며, 나의 감수성과 활동력으로 시대와 지역의 이슈를 연결 짓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시작된 질문이 어떤 수행의 과정으로 펼쳐졌을까요?

문화기획자의 방향성과 자기정체성을 탐구하여 삶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경험을 쌓아가기 위한 <몸빵의 밀도>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 26명의 참여자들은 마주하고 싶은 결핍, 호기심, 두려움, 애증, 끌림을 흘려보내지 않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자신과 같이 이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며 나로부터 출발한 마음이 여러 관계성을 거쳐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들을 확보해갔습니다.

추진 과정

구분	내용
특강	<p><수행을 위한 워밍업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질문·관찰의 태도 장착하기 위한 과정
멘토링	<p><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을 위한 수행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독하고 은밀한 자기 자신을 용기있게 마주하기♦ 나의 언어를 행동으로 표현하기

교육내용

회차	추진과정	시수	일시	비고
1	오리엔테이션 및 문화기획자의 정체성 확인하기	3	8. 10.(목)	자기소개와 멘토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워크숍
2	수행의 의미 <무엇을 보고 있는가>	3	8. 17.(목)	이슈를 문화적으로 읽는 관점 기르기 특강 (김월식 멘토)
3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몸과 마음 균육 기르기 - I	4	8. 24.(목)	
4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몸과 마음 균육 기르기 - II	4	8. 31.(목)	
5	'나의 감각'으로 프로젝트 추진하기	4	9. 7.(목)	
6	'우리의 감각'으로 밀도 높여보기	4	9. 14.(목)	
7	'서로의 감각'을 관찰·사유·질문하기 중간 공유 워크숍 및 사업비 운용 가이드라인 안내	4	9. 21.(목)	당사자성에 기반한 프로젝트 준비 공유 워크숍
8	다시 '나의 감각'으로 밀도 높여보기	4	10. 5.(목)	당사자성에 기반한 문화기획 아이디어 도출 워크숍
9	'나의 감각'으로 수행하기 - I	4	10. 12.(목)	당사자성에 기반한 프로젝트 준비 공유 멘토링
10	'나의 감각'으로 수행하기 - II	4	10. 19.(목)	당사자성에 기반한 프로젝트 준비 공유 멘토링
11	'몸뚱의 밀도'로 프로젝트 수행하기 - III	11	10. 20.(금) ~ 11. 5.(일)	수시 멘토링 진행
12	'생'의 감각으로 밀도 높이기	3	11. 2.(목)	생각을 교차하고 날 것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획'을 함께 나누는 워크숍
시수 총계		52		

프로젝트 운영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기반으로 24건의 프로젝트 진행,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맥락과 이야기로 24개의 결과물 도출

- ♦ 기 간 10. 7.(토) ~ 11. 5.(일)
- ♦ 대 상 맞춤과정 참여자 26명 / 실 참여자: 25명
- ♦ 예 산 1인당 69만 원 이내 ※프로젝트 총 지원비 1800천 원, 참가자 26명 동일 지급 기준
- ♦ 지원방식 최소 1인 ~ 팀 프로젝트 진행
- ♦ 실행건수 24개의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세부내용

연번	기획자	프로젝트명 / 내용	기간	사업장소	멘토
1	김선아	시우, 때맞춰 내리는 비 아이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문화기획자로서 놀이터 리코더버스킹 기획 운영	10. 7. ~ 11. 2.	두미르 2차 아파트 외 2곳	김월식
2	오미자	나는 '오미자'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이름을 찾기 위한 일상 도전 프로젝트	10. 14. ~ 11. 2.	춘천일대 (춘천교대운동장, 사진관등)	팅
3	황현미	PUSH & TOUCH 아이들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 다자녀가정기획자의 양육방식과 관계성 재구성 (직면, 분배, 경청) 프로젝트	10. 15. ~ 11. 1.	춘천일대 (춘천소재카페2곳, 체험장소3곳등)	팅
4	이경우	어머니의 의자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10. 20. ~ 11. 2.	춘천일대 (캠핑장 2곳)	팅
5	송병숙	목적 없이 지내리 낯설고 새로운 감각을 깨우고 오감에 집중하는 마을버스투어 프로젝트	10. 11. ~ 11. 2.	춘천일대 (춘천시동면 지내리행 마을버스등)	팅
6	이상록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물은 삶어요 무서워하는 물과 좋아하는 법률을 연결시켜 공존의 방식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10. 10. ~ 11. 2.	춘천일대 (실내풀장이 있는장소)	김월식
7	신소영	애리하 프롬의 '필사적' 사랑의 기술 필사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사랑이라는 난제에 함께 다가가보는 프로젝트	10. 18 ~ 11. 1.	춘천일대 (인생공방기록장)	김월식
8	홍성욱	동네방네 릴레이 투어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접 기획한 춘천투어 프로젝트	10. 27. ~ 11. 2.	춘천일대 (효자동, 석사동, 퇴계동, 약사령동등)	팅
9	서현솔	Pop up Anarchy Space '무정부 상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해볼 수 있는 장소와 상태 운영 프로젝트	10. 20. ~ 11. 2.	춘천도심	주성진
10	조영웅	영웅출가 자기 팀색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 출가한수행자 같은 삶을 체험해볼 수 있는 방안 모색프로젝트	10. 25. ~ 11. 1.	춘천일대 (춘천및인접한 지역출가 체험기능공간)	김월식

연번	기획자	프로젝트명 / 내용	기간	사업장소	멘토
11	안현옥	신박한 파티 버스 (Fabulous Party Bus) 힐러(심리상담및예술치료사)의 범이웃방지와 생산성만을 쫓는 삶에 재미와 유쾌함을 더하는 자기돌봄프로젝트	10. 24.	춘천일대 (삼안산케이블카 주차장등)	팅
12	남홍숙	MoM (Memory of Mom) 테라피 돌봄과 배려를 하는 어머니와 봉사자들과 자기돌봄을 하며 활력 에너지를 충전하는 프로젝트	10. 20. ~ 11. 2.	춘천일대 (커뮤니티공간, 카페 등)	팅
13	정하원	식태기 극복 프로젝트 : 안녕, 식물씨 반려식물과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에 대한 환기와 관계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	10. 21. ~ 23.	지역 곳곳	주성진
14	김태용	지속가능한 김태용 만들기 프로젝트 : 카르텔 지역문화예술동료들과 '일의 의미'로 연결되어 우리만의 카르텔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10. 31.	춘천 내 파티룸	김월식
15	신성희	그들의 이야기 마음의 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해결 모색프로젝트	10. 25. ~ 31.	춘천 및 서울	팅
16	정민채, 이박 연두	오늘을 특별하게, 밀도있게 '몸빵필름' 유한한 영상필름을 사용하여 몸빵의 밀도와 속도를 담아내는 프로젝트	10. 21. ~ 23.	춘천일대	주성진
17	윤동현	나만의 빈티지 브랜드 '타프' 빈티지 의류를 기반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10. 23. ~ 11. 4.	춘천 일대 (효자도입 등)	주성진
18	김수정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어 Sugar ZERO project 요리연구가의 음식에서 '단맛'을 줄여보고 사람들과 단맛취향을 발견하는 프로젝트	10. 28. ~ 30.	차림쿠킹 스튜디오	김월식
19	손지민	춘천생존체육인회 운동의 중요성은 알지만 시작하기가 쉽지않은 생존체육인들의 관계형성 프로젝트	10. 29.	춘천일대 (모두의살롱후평)	김월식
20	이은정	냥냥펀치 '돌봄'의 영역에서 동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는 보은 프로젝트	10. 26. ~ 11. 2.	춘천일대	주성진
21	김지영	시간을 담은 상점 돈 대신 시간화폐로 서로 돌봄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시간 화폐 플리마켓 프로젝트	10. 27. ~ 11. 2.	춘천일대	주성진
22	이루다	be 명, 생각멈춤 생각을 멈추고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프로젝트	10. 29. ~ 11. 2.	춘천일대 (집,춘천숲과강)	김월식
23	박서현	부럽지가 않아 : 헤드헌터의 사람추천리포트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돋는 실험 프로젝트	10. 30. ~ 11. 3.	춘천일대	주성진
24	박지호	점자 침투 작전 점자의날(11.4.)을 맞아 점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춘천 곳곳에서 점자를 낯설지 않게 보여주기 위한 게릴라프로젝트	11. 4. ~ 11. 5.	춘천일대	주성진

맞춤과정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질문



김월식 멘토 ♦

가슴 뛰는 기획을 하자

나의 암묵지에 있는 나를 호명하여 마주하고 질문하자

더듬거리며 보고 벼벽대며 말하고 주춤거리며 행동하자

돕지 말고 치유하지 말고 구하지 말자

나의 고유성을 믿자



팅 멘토 ♦

재미있는 일을 하자 (그 어떤 재미라도)

행동 먼저, 판단은 그다음

내 일의 주인이 되자

나도 안 하는 건 남에게도 권하지 말자

자신의 리듬에 맞춰 춤추듯이 걷자



주성진 멘토 ♦

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재미난 걸 하자

가능하면 가늘고 길게

나와 제일 좋아할 한 명만 생각하자

조금은 이상하게, 조금은 거칠게, 조금은 이기적으로

현행법의 테두리만 넘지 말자

당신은 기획을 하기 위한 본인만의 수행의 원칙이 있나요?



기본 과정



"회차마다 던져지는 키워드들이 삶과 가깝게 닿아있어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이전에"

나 자신과 더 친해진 느낌이 들어 좋았다."

- 기본과정 참여자 후기



운영진이나 멘토들이 전체 과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이 유효했다.

편하니까 절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알아서 하게 되었다."

- 기본과정 참여자 후기

맞춤 과정



"사실 이 과정이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멘토진에 있었다."

- 맞춤과정 참여자 후기



"결국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기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몇 개월 사이에 개인적인 이슈들로 프로젝트와 과정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올해 이 과정을 계속 한 건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각자의 취향과 방향을 자유롭게 찾아가는 기회 단계가 좋았다."

- 맞춤과정 참여자 후기

성과공유회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른 단체의 행사는 비교적 딱딱하고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결과 도출에 매몰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맞춤과정의 성과공유회는 달랐다. 1.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프로필 사진

촬영 2. 자신이 움직이는 속도를 찾는 과정에서의 관점이나 생각을 담은 기록물 제작



3. 사무적인 분위기 대신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성과공유 시간 등 순전히 결과 발표나 성과공유를 넘어 함께 지금까지의 발전과 성장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이자 계속해서 참여자들의 동기와 역량강화에 배려를 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서 매우 좋았다.

- 성과공유회 참여자 후기

김월식 멘토 팀

김선아

김수정

김태용

손지민

신소영

이루다

이상록

조영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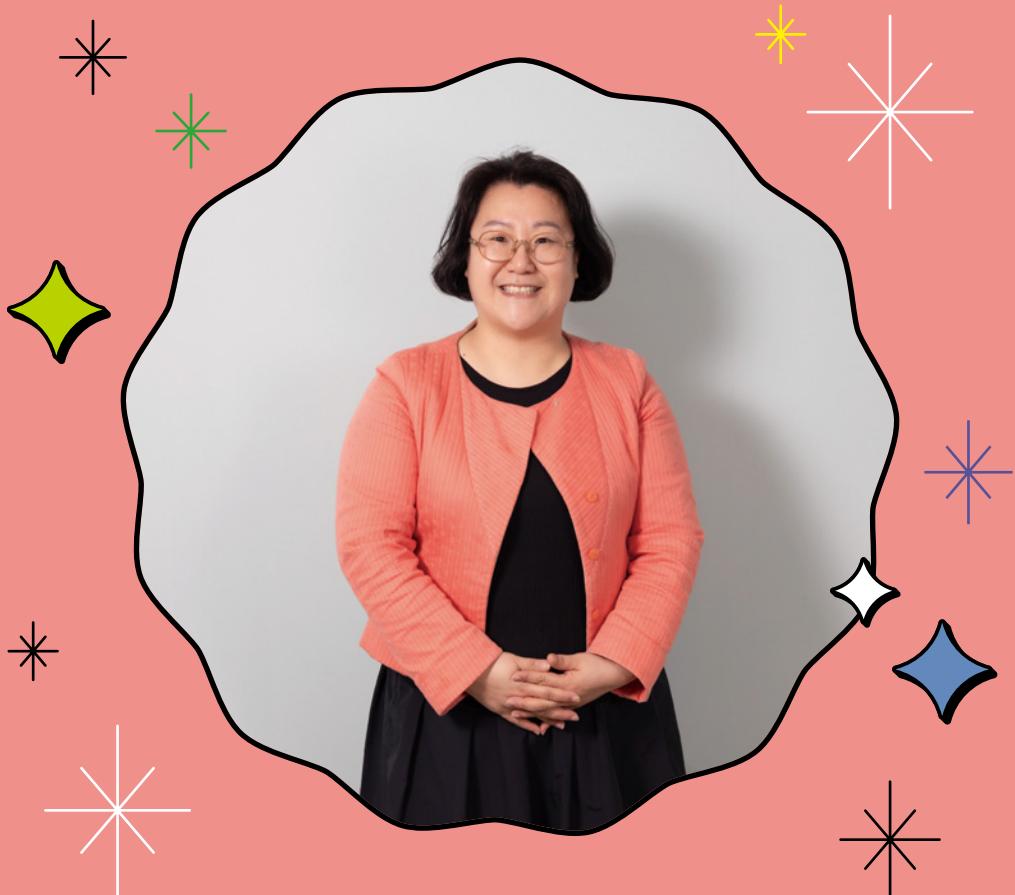
가슴이 뛰는 일을 하자, 진정성(본인이) 있는 기획을 하자,
유머(농담)를 장착하자, 단순하게(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 강령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의미없고 쓸모없고 불화정적인것을 향해 움직이고 수행합니다.
“기획자는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김월식

”







김선아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은 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을밟으면서 지금까지 반백 년 살아오는 동안 무난했던 내 삶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멘토들이 서서히 조금씩 던지는 질문들은 나를 잠깐 멈춰서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난 지금 시우(時雨)답게 살고 있는가, 가슴이 뛰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과정 내내 그리고 특히 개인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 순간 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정이 끝나갈 때쯤 나의 대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시우(時雨)답게 살아 보겠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멘토의 삶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되었던 날.

김월식 멘토님의 <무늬만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오픈하던 날. 우리 모둠원들은 그 공간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따스했고 자유로웠고 아기자기 해 누구든 들렸다 갈 수 있는 사랑방이 될 것 같았죠. 김월식 멘토를 아는 사람들은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요. 다른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가장 쉬운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인데 말이죠. 이런 멘토를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 과정이 갖는 의미는 충분합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가? 가슴이 뛰는 일을 하자.”

모둠원들 각자 개인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을 때 김월식 멘토님이 한 이야기. “기획자는 모든 이들의 사고 영역을 넓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문화 기획은 문화서비스가 아니다. 서비스가 되면 일이 되는 것이고, 일이 되면 스스로 재미가 없어진다. 재미가 없다면 나에게 의미가 없다. 기획한 사람이 없어도 누구든 대체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획이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움직여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기획하는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내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점검해 보자.”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시우, 때맞춰 내리는 비



아이들에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문화기획자로서
놀이터 리코더 버스킹 기획 운영 프로젝트
2023.10.7 ~ 11.2. # 두미르 2차 아파트 외 2곳



나에게 '時雨, 때맞춰 내리는 비' 란?

'때맞춰 내리는 비'라는 뜻을 가진 말 時雨. 이 날말이 밤에 드는 건, 時雨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난 시우처럼 살고 있나?' 엄마로 선생님으로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무대에
서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놀이터 버스킹을 기획했습니다. 올해
아이들과 리코더 동아리를 운영했고,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번씩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늘 하던 대로 학교
다목적실과 교실 공간을 이용했지요. 익숙하지만 새로운
공간이 어디 없을까 고민하다가 놀이터를 떠올렸습니다.
<時雨, 때맞춰 내리는 비>는 우리동네 놀이터 버스킹
이름입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풍선을
이용해 환상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익숙하지만 달라진
공간에서 리코더 연주를 했습니다. 자유로운 시공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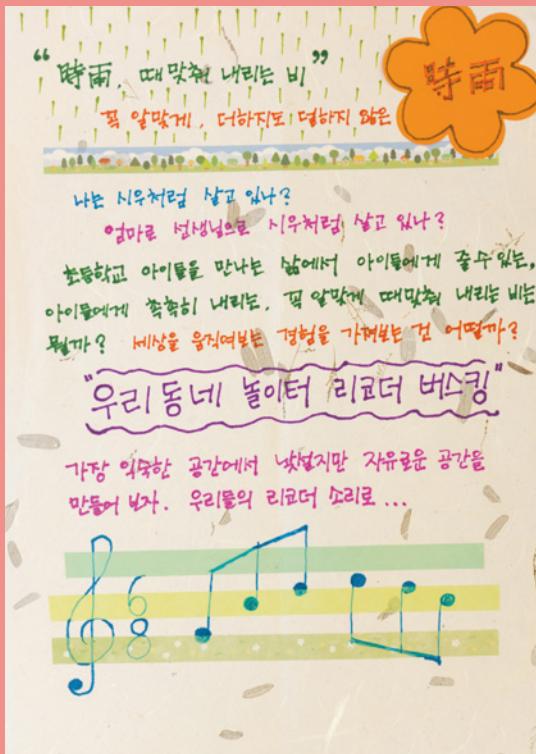


느낀점 _ 새로운 무대

무대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보면 무대가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공간은 무대가 될 수 있고, 무대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무대에서
연주한 경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추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최대 난관 _ 견고한 틀

놀이터에서의 버스킹을 위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구해야 했고, 학교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야 했습니다. 틀을 깨고 싶은 프로젝트였는데,
견고한 틀(프로젝트를 추진하기까지의 과정, 예산사용 등)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 리코더 버스킹은 저와 그리고 함께한 아이들에게 꼭 알맞게, 적당하게, 때맞춰 내린 단비였습니다. 익숙한 공간을 색다른 공간으로 틈바꿈시켜 우리만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무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時雨였습니다.

김선아

“

무대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조명, 음향 등

무대감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배워서,

공연을 만들고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김수정



본 과정을 통해 그렇게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이 3시간씩이나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은 나에게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서로의 흥미로운 경험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척 새롭고 신선한 대화라는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순간을 즐긴 그들의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나의 새로운 속도는 진행 중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그룹 친구들은 새로운 소식에 민감했고, 매우 빠른 정보검색으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돌을 볶는 중국 상인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상인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으며, 나 또한 어느새 돌을 볶고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 주었던 그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생각이 다르다는 것, 생각이 많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 생각들, 그들의 표정, 웃음, 얼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도 많은 생각과 기억을 간직하며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잊고 지낸 게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고민이라는 귀여운 친구가 너무도 행복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많다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열정이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빵의 밀도를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어. Sugar ZERO project

{ }
요리연구가의 음식에서 '단맛'을 줄여보고
사람들과 단맛 취향을 발견하는 프로젝트
2023.10.28 ~ 10.30. # 춘천 차림쿠킹 스튜디오

나에게 'Sugar' 란?

오래 함께 가고 싶은 한 꼬집의 행복이다.

저는 짠맛이 강한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 단맛이 강하면 얼마든지 참고 먹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나의 취향을 가리켜 누구는 “너무 달게 먹는다”, 누구는 “네 생각만 하나”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탕수육, 걸절이, 불고기, 피카파이 등을 대접하면서, 내가 선호하는 단맛의 정도와 개인이 느끼는 단맛의 정도가 어떤지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단맛이 포인트가 되는 4가지의 음식 조리법이 하나, 단맛을 1/2로 줄인 것이 또 하나, 이렇게 4가지 음식을 참가자들이 맛을 보고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서로 다르게 느끼는 단맛의 정도를 통해 각자의 단맛 취향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느낀점 개인의 취향

내가 단맛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편향된 취향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로 내 입맛에 맛있는 것은 타인들도 맛있다고 느끼지, 달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단맛을 좋아하지만, 그보다는 음식에 섞여 조화로운 단맛을 사랑하는 나. 이번에 이들이 나의 음식 레시피를 사랑해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최대 난관 시작도 못한 비건 레스토랑 순례

미슐랭가이드 2023~2024 비건 레스토랑 순례를 통해 트렌드도 읽고 내 음식의 밀도도 높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는 음식값을 지불하는 명목이 마땅치 않아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음~ 프로젝트는 역시 어렵네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닌, 수많은 검색대를 거쳐야 해서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복이 번져나가는 ing ~~

도장찍기는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거였어요. 나의 행복이 퍼져나가는
중이죠.

지금도 어디선가 나는 복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다보면 마음 속 바라는
일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거든요.
나의 복 도장은 조금씩 확장해서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김수정

“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바는 어떤 현장이든,
어떤 활동이든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고,
내가 활동하면 그곳이 바로 문화의 현장이라 생각해요!

”



김태용



내 삶을 0.1%라도 변화시키고자 한 새로운 시도! 평소의 생활 범주에서 벗어나 만난

새로운 접점의 사람들, 그들의 취미와 취향을 탐색했습니다.

신점을 보고, 태국 음식점도 가보고, 아로마 마사지도 받아보고, 독립서점에도 가보고.

모두가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과는 큰 소득도 없고, 입맛에도 안 맞고,

아프기만 하고, 특별한 감흥도 없었습니다. 효용 관점에서는 실패라고 하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오래 버텨온 나의 외로이 굳은 세계관을 깨부수고, 확장하면서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관점에서는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밥통'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나! 밥 먹으면서 함께 둘러앉아 밥통의 고유한 기능을 어디까지 비틀 수 있는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볼링, 금고, 다리미, 베개, 달팽이집, 족욕기, 헬멧, 부화기 등 쓸모없다 느껴질 수 있는 질문에 다들 진지하게 참여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고정관념을 깨부술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나라 · 사회 · 이웃을 구하지 말자”

문화기획을 하면서 타인의 감동을 위하는 기획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하자는 멘토링 대화.(“나의 깊은 내면을 호명하는 기획으로서 당사자성을 가져야 한다.”, “기획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내 인생을 바꾸어본 사람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등 같은 맥락의 대화들.)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지속가능한 김태용 만들기 프로젝트 : 카르텔

{ 지역 문화예술 동료들과 '일의 의미'로 연결되어
우리만의 카르텔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
2023.10.31. # 춘천 내 파티룸

나에게 '카르텔' 이란?

사랑의 큐피드. 나 자신과 '일'의 사랑을 이루어주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일을 하며 얻는 결과와 성취로 아주 잠깐은 기쁠 수 있다.

하지만 일은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얻는 행복은 좋은 동료와 함께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카르텔은 그런 동료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해주는 곳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는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 약간 지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던 최근, 본인을 '소수자'라고 틀에 가두면서 강박을 주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지는 않았나 반성했습니다. 문화판에서 경영기획을 하는 '소수자', 지역에 혼자 남아있는 '소수자', 조직에서 혼자 성과를 내야 하는 '소수자' 등 주위에 스스로 벽을 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줄 회사 밖 '동료'들을 모아 보고 싶어졌습니다. "지역 내 문화판에서 또래의, 비슷한 포지션의 사람들과 무언가라도 작당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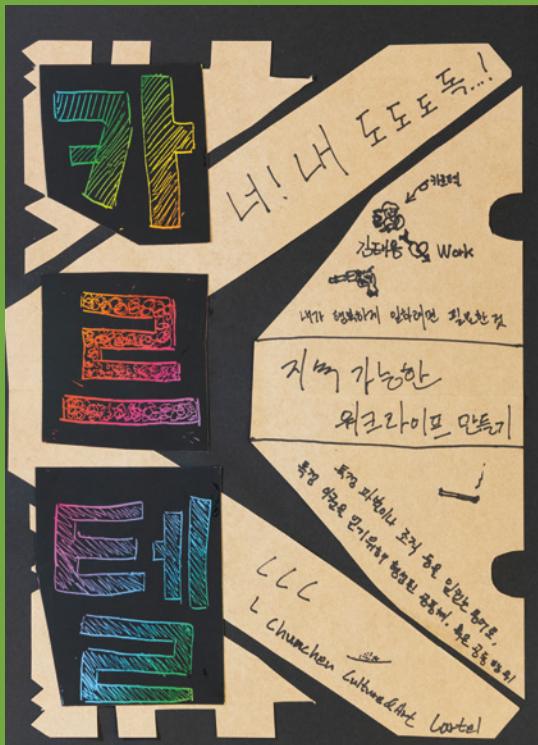


느낀점 _ 인식의 변화

이번 수행의 가장 큰 울림은 무의식 속 욕망에 대해 인정하고, 업무든 관계든 골고루 지향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꾸려나가야겠다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동질감과 내적 친밀감, 안도감도 느낍니다.

최대 난관 _ 비도덕적인 활동

'카르텔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비도덕적인 콘셉트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해서 '최근 한 일 중 가장 쓰레기 같은 짓?'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해당 콘셉트 구현은 어려웠습니다. 다음번엔 술의 힘을 빌려야겠습니다.



“너! 내 도도도독...!”
 (너, 내 동료가 돼라)
 혼자 일하는 게 익숙했던
 고독한 인간의 주변을 향한 짧고
 벼락거리는 외침이었으며,
 공공이 아닌 오히려 주변을 이용해서
 라도 일단 내가 먼저 재밌게
 잘 살아보자는 이기적인 인간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김태용

“

카르텔은 이번 모임에서는 서로를 파악하는 정도였고,
 다시 모여서 어떤 특별한 ‘이권’을 추구할지 구체화하면서 정체성을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각 조직과 현장에서
 각자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 혹은 직접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영향력을 발산하게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책상 앞에
 혼자 치박혀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과 활동을 많이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손지민

일이나 학업이 아닌, 내가 순순하게 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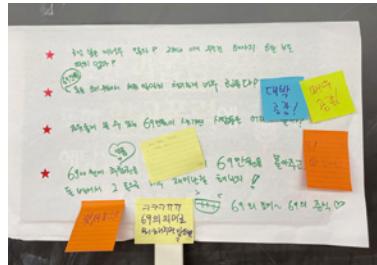
멘토님과 몸빵 식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또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내 몸과 여력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존체육인회’는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속도에
딱 맞는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 관심사를 가진 또래 춘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화내는 월식쌤, 멋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월식曰. “69의 묘미. 이런 기록을 하다니(감탄)!”

가영曰. “지민을 아끼는 사람들을 실컷 만나서 탕후루보다 더 달달한 시간이었어!”

몸빵의 밀도를 찾아서



춘천생존체육인회

{ 운동의 중요성은 알지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생존체육인들의 관계형성 프로젝트
2023.10.29. # 춘천 일대(모두의 살롱 후평) }

나에게 '생존체육인' 이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 약한 나를 극복하고 싶은 욕망. 또한 아직 약하고 미숙한 나를 긍정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공동체.

을 한해는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즐기고, 또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순간을 충실히 즐겼는지, 충실히 보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양해를 구하고, 피곤해하면서 지나가면, 분명 좋은 순간들이었는데, 희미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저의 체력, 육체의 능력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생존체육인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순간순간들을 같이 공유하고 기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한, 생존에 의한, 생존의 운동 공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느낀점 우당탕탕, 뜻깊은 경험

무작위의 여러 사람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주관하는 것은 제가 처음 해본 일인데, 무척 어렵고 난감했습니다. 우당탕탕하기는 했지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운동을 위해 만났지만, 운동 공유회의 메뉴는 칼로리 높은 마라탕과 탕후루. 하지만 과일을 직접 씻고 꽂는 큰 노력(운동)과 난센스 운동이 함께한 즐거운 파티였습니다.

최대 난관 시간, 예산, 탕후루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예산 항목을 따져서 잘 쓰는 게 너무 어렵다.
탕후루 만들기가 잘 안된다.....



저는 항상 의욕이 넘치지만, 체력과
에너지가 부족해 방전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젊음과 깨끗으로 버텼는데
이제 슬슬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저와 같은 고민의 사람들과
함께한 생존체육인회!
그 소통과 연대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손지민

“

이번 커뮤니티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거나 만드는 과정을 조율하느라
제가 이야기에서 멀어질 때가 많아서 좀 아쉬웠어요.
DIY 체험이나 운동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 중 하나였던 문화계(복권) '69의 묘미'도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보완해서 기획하고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



신소영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되뇌었고, 나의 이야기를 뱉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휘발되지 않고

오래 남았으면 하는 문장들은 아무렇게나 기록했고, 가끔 열어봤습니다.

피상적인 것들에 연연하게 되는 일상을 보내다가도,

기본과정 중에 나눴던 말을 떠올리며

본질을 들여다보려던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결과공유회의 시작을 알렸던 비앙의 '단어나열'. 각 팀의 키워드를 순서대로 읊어주었는데, 그건 우리들의 믿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는 단어는 귀에 쑥쑥 박혀서 숨은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반려 달팽이로 퍼스널 브랜딩을 시도했던 한심한 나의 장례식 이후, 더 이상 달팽이에 대해 묻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나도 달팽이를 마음에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새어 나왔던 나의 진심과 참여자들의 호기심이 오갔던 대화들은 여운이 길었습니다.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에리히 프롬의 '필사적' 사랑의 기술

{ 필사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사랑이라는 난제에 함께 다가가보는 프로젝트
2023.10.18 ~ 11.1. # 춘천 일대(인생공방 기록장) }

나에게 '동물'과 '필사'와 '사랑'이란?

사랑하는 동물의 필사(必死)는 과거에 후회만 가득 남겨 나를 아프게 했고,
필사(筆寫)로 배운 사랑은 미래에 기대를 걸게 하며 나를 치유했다.
물론 동물도 사랑도 여전히 모르겠고 앞으로도 모를 예정인지라
필사적으로 서걱이게도 필사적으로 쓰라리게도 살면서 알아 가봐야겠다.

이 프로젝트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10명이 나눠 읽고 필사하여 노트 한 권을 완성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필사'라는 3개월짜리 취미와 최근 나를 흔들어놓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잘 섞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사실 필사라는 아이템은 소소한 취미를 엿들여져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사랑이라는 주제는 내 삶에 침투한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프로젝트에 담아 소문낸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필사라는 도구로 은근하게 소문을 낼 수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와 함께 필사를 습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희망, 그리고 앞으로도 꼭꼭 씹어먹어야만 하는 필사로 무언가를 알아갈 용기를 얻어갑니다.



느낀점 _ 일단 하면된다

'짠!'하고 완성되는 프로젝트도 없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일단 하면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보류하지 않고 영감을 찾기 위한 어떤 짓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 난관 _ 침묵

저는 편한 자리가 아니라면 대화를 리드하기보다는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밋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월식 멘토님은 침묵을 견딜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 진행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침묵은 평소의 것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습니다.

신소영, 에리히 프롬의 <필사적 사랑의 기초> 이성복 참여자의 필사본 일부.

○ 23. 10. 24 17:30 p.74 ○

3. 사랑의 대상

본래 사랑은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에 한 '마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터보', 곧 '심장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사용하고 나에게 등장예제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식적 대화이며,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성장한다고 믿고 있다.

사실은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는 예외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간접형을 일컬어는 심장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동일한 오류다.

사랑은 차원이며 영광의 힘임을 알지 못하여 퍼팅에 사랑들은 단지 물체를 대상을 찾거나하는 것임이 필요하며, 그런데 보면 그들에 일은 모두 저질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

P.75 이 때는 고집을 고집을 살피려면서도 기술은 뛰어지 않고, 윤리를 대상화를 조망이나 대상화를 갖기보다 아름답게 그릴 수 있고, 짜증하는 사람의 태도에 마음을 수 있다.

▶▶▶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X.O.

만일 내가 갑자기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은 에리히 프롬의 '필사적' 사랑의 기술 참여자들이 완성한 필사노트의 일부입니다.

미디어에 남발하는 자극적 서사로부터 벗어나 사랑을 꼭꼭 씹어먹으며 소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신소영

“

'노궁금+노재미'라고 느껴지는 일에는 손을 잘 안 뻗는 저는,
그때그때 궁금하고 재밌어 보이는 일들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확실한 건, 눈에 띄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눈에 띄지 않고
각자의 삶이 다양하게 굴러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문화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알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이루다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올해 가장 큰 행운입니다.

춘천에 이사 온 후 춘천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면서 매번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이런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누굴까?’

문화기획 분야 실무자들을 멘토나 동료 참여자로 만날 수 있었던

이번 기회는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개인프로젝트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시작된 생각의 움직임이 오래도록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권가영 선생님의 환한 웃음.

긴장이 가득했던 과정 속에 권가영 선생님의 밝은 미소를 보면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초반에는 권가영 선생님이 안 보이면 불안할 정도로 의지했어요. 아하하...

◆ 기억에 남는 대화

“무엇을, 왜, 어떻게,

나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싶은가?

프로젝트는 자기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김월식 선생님 말씀 중에서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be 멍, 생각멈춤



생각을 멈추고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프로젝트

2023.10.29 ~ 11.2. # 춘천 일대(집, 춘천 숲과 강)



나에게 '생각멈춤' 이란?

깊은 잠이다. 깊은 잠을 자고 싶은 나에게서 시작된 프로젝트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쉴 수 있을까?' '나는 잘 수 있을까?'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어슬렁 혹은 바삐 돌아다닙니다. 쉬는 동안에도, 잠이 드는 순간에도 생각들이 서로 엉켜 바빠 돌아다닙니다. 생각의 가짓수를 줄이고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을 위해 위빙 공예(씨실과 날실을 교차해 직물을 만드는 작업)에 도전했습니다. 엉켜있는 생각 타래에서 한 가닥 '생각의 끝'을 찾아 조심스레 뽑아내고, 다른 생각이 담긴 실이 따라 올라오면 잠시 멈추고, 또 다른 한 가닥의 '생각의 끝', '생각 실'을 찾아 뽑아냅니다. 이렇게 '색'이 끝나면 '소리'로 옮겨가 싱잉볼, 레인스틱, 코시차임 등 다양한 악기 소리를 찾아 집중합니다. '소리'가 끝날 때까지 한 개의 생각을 끌고 가면 드디어 아무 생각도 없는 '생각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느낀점 기획과 현실은 다르구나

기획했던 장소에서 위빙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바다에 가서 바다색으로 위빙을 하겠다며 바다까지 가서는 바다색 털실 찾아 사진만 찍고 위빙에는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해 결국 한두 줄만 뜨다가 왔습니다. 쓰다 보니 이 자체만으로도 프로젝트의 한 부분인가 싶고 그러네요.

최대 난관 나의 기획의도를 따르지 않는 나

프로그램 수행 중 한 가지 생각만 하지 않는 나 자신. 한 가지 생각만 할 생각조차 없는 나. 한 번에 단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은 올 것인가?



원단의 뒷면입니다.
원단의 앞면만큼이나
아름다운 빛을 지닌 뒷면,
가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으로도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만들었어요.



“

생각의 움직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 줄까요?
이번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도시가살통 등
다양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고,
언젠가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이루다

”





이상록

내 생활반경 속에서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편한 관계를 추구했던 일상,

그런 내게 30주라는 시간은 평소 나를 움직였던

속도와는 다른 무엇이었습니다.

삶의 배경과 취향이 다른 그들과

내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영역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매주 목요일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김월식 멘토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1도 변화시키기 위한 사소한 실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의미 없이 지나치는 계단에서 뭔가 찾아보고자, 나의 수행을 '계단의 마지막 칸은 점프하여 내려오기'로 정했는데, 어느 건물을 내려오던 중 2층 병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도와달라는 한 할머니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에겐 가볍게 점프할 수 있는 이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음에 '배리어프리'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취향에 대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주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선호하는 것과 취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을 멀리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즐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접하지 못한 영역도 많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물은 싫어요

{ 무서워하는 물과 좋아하는 법률을 연결시켜
공존의 방식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
2023.10.10 ~ 11.2. # 춘천 일대(실내 풀장이 있는 장소)

나에게 '물' 이란?

멀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 물은 이유 없이 무섭다. 깊은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겪으며 물의 귀여움을 보았다.
아직은 두렵지만 언젠가는 가까워지고 싶다.

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물놀이와 수영장 방문을 멀리하는 '나'에서 프로젝트는 출발하였습니다. 물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닌 함께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비록 물놀이는 못 하지만, 그곳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기로 마음먹고, 수영장 '생활법률 퀴즈대회'를 열었습니다. 저처럼 물을 싫어하거나, 기존의 물놀이에는 흥미가 없거나, 물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갈망하는 참여자들을 수영장으로 초대해, 법조문과 판례를 함께 읽으며 물 옆에서 물놀이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가운데 웃으며 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느낀점 _ 새로운 공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 외에도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과, 물을 좋아하는 하지만 전형적인 물놀이에 지쳐 새로운 활동을 원하는 욕구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사람, 기존의 물놀이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이 함께 수영장에서 법학 퀴즈대회에 참여해 웃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공감'을 느꼈습니다.

최대 난관 _ “프로젝트 뭐 할까?”

저의 최대 난관은 시작부터였습니다. 멘토님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과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저를 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꽤 막막했는데 함께 툭툭 던진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세부 내용을 수립할 때도 함께 소통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물은 넓어요 > 이 상록

• 물과 친해지고자 물에서 좋아하는 것을 해보았어요.
→ 수영장에서 냅풀퀴즈대회를 열었어요.

• 물을 즐기고 있는 사람, 물풀이에 실증난 사람들과 함께
물에서 새로운 공감을 느꼈어요.

Q.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허락없이 타고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정도리가 성립한다 (○/✗)



물을 극복?
"물과 친해지기"

물에서
재미있는
일을 하자!

수영장에서
"냉풀퀴즈대회"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실행까지 생각의 과정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해보십시오. 아마 조금은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록

'어떤 과정'을 함께한 여러분들을 이후

다른 '어떤 곳'에서든 만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또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요?

”



조영웅



속도 대신 위치와 방향을 찾아 해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보다는 ‘무엇’ 자체에 집중해서

내가 ‘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갔습니다.

‘기획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획할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기획인가’ 이러한 의문과 반성, 지적과 검토들로

문화기획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문화서비스를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멘토들이 기획을 듣고 피드백을 주는 순간들. 때론 참여자의 생각이 닿지도 못했던 영역까지 파헤쳐서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고 지적해줄 때마다 놀라고 감탄하곤 했습니다.(역시 이게 짬밥… 재단의 섭외력…) 다만 마치 교수님이 신입생에게 힌트를 주듯 너무 뜬구름같이 방향을 제시하곤 해서 어려웠지만, 그걸 붙잡고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것도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문화기획은 문화서비스가 아니다.”

“일이라는 것은, ‘업자’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기획은 효용성의 가치, 논리적 의미의 바깥을 생각하게 만들어 줘야 하고, 사고의 영역을 넓혀줘야 한다. 따라서 ‘나의’ 기획에는 ‘내기’ 들어 있어야 하며, ‘내기’ 재미있어야 한다. 재미도 없는 것을 남을 위해 하지 말라.”

기획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내 기획의 주된 방향성과 행동 양식에 많은 검토와 교정을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영웅출가

{ 자기 탐색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 출가한 수행자 같은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방안 모색 프로젝트 }
2023.10.25 ~ 11.1. # 춘천 일대 [춘천 및 인접한 지역 출가 체험 가능 공간]

나에게 '속세' 란?

벗어나고 싶지만, 다시 돌아가야만 하고 피하고 싶지만 깊이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다.
결국 속세란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이를 통해야만 나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어 주지만, 가장 몸이 편한 곳이기에 결국 되돌아가게 되는 곳이다.

초기 프로젝트를 고민하며 가졌던 질문들, '왜 이런 것을 찾는가.'
'꼭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행위여야 하며, 지루하지 않아야만 하는가.'를 몇 번이고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미와 쾌락이 아닌 노잼과 노쾌락의 세계'로 접근하는 새로움을 추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간들로 속세의 공간들을 선정하고, 노잼과 노쾌락의 행위로 출가를 골라, 자연이 아닌 '속세로의'에서의 출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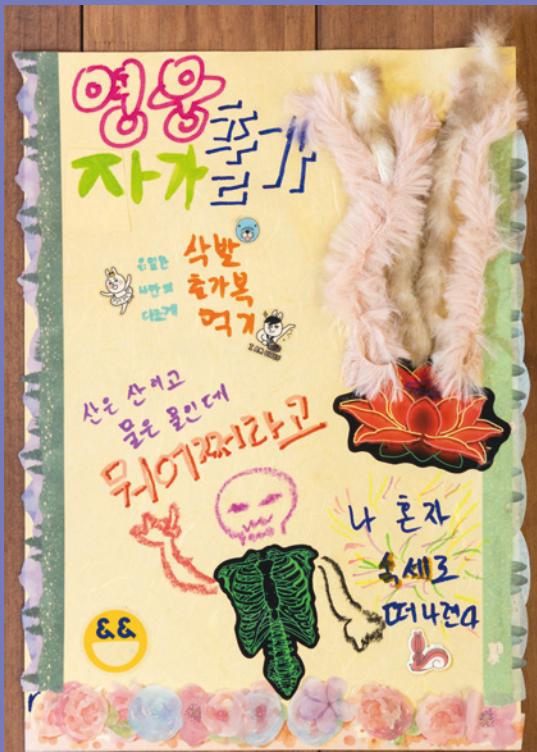


느낀점 _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 곳에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과정과 준비도 막상 실제 진행 속에서는 수많은 허점과 검토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나만의 차별적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내가 만든 기획이지만,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시선과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간과했던 것 중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 중 간과해도 무방한 것들이 산재하고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와 가장 먼 곳에 있었습니다.

최대 난관 _ 시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이 하필 올해 중 가장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프로젝트를 위해 구상했던 시간 배분과 그에 따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부분을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준비 시간과 실행 시간을 포함한 '시기' 그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출가에 대한 무겁고 진지한 규칙마저도
하나의 속박이고 굴레라는 생각으로
‘내가 떠나면 그게 출가지하는 행위와
마음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새로움과
다른 삶, 시선 전환을 위한 ‘출발·출가복
·식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요. 뭐
어쩌라구요. 그게 내가 ‘했던’ 프로젝
트고, 내가 ‘하는’ 출가라고요.”

“

조영웅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지만, 다양한 문화,

사회적 활동과 현장 속에서

자기 탐색과 반성도 해보고 싶습니다.

익숙한 활동과 순간임에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활동과 순간을 자아내고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김희연(통) 멘토 팀

남홍숙

송병숙

신성희

안현옥

오미자

이경우

홍성욱

황현미





복

행복

“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는 어떤 과정’은

어쩌면 끊임없이 헤엄쳐야 가라앉지 않는 기획자의 호흡을
닮아있다.

움직이는 속도를 찾고자, 움직여야 했던 28명의 참여자들의
시간은 마지막 날까지 적당히 어수선하고 적당히 분주하며
적당히 나른하고 적당히 조용하다.

팅

”







남홍숙



지금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춘천이라는 공간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좀 더 친해지고, ‘춘천’과 좀 더 친해지게 된 소중한 경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3시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신기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는 그러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일상생활에서 허우적대던 ‘나’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나’를 배려할 수 있게 해준 알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참여 신청 후 면접을 보면서 두근두근했던 그 순간.
면접 공간 구성으로 인상적이었던 원탁의 공간, 서로의 이야기에 귀담아 주던 순간!
자신의 이야기를 관철해 나가는 면접자들! 그 속에 그렇지 못했던 나!

◆ 기억에 남는 대화

춘천을 들여다보는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몽방의 밀도를 찾아서



MoM (Memory of Mom) 테라피

{ 돌봄과 배려를 하는 어머니와 봉사자들과 자기돌봄을 하며
활력 에너지를 충전하는 프로젝트 }

2023.10.20 ~ 11.2. # 춘천 일대 [커뮤니티 공간, 카페 등]

나에게 '힐링' 이란?

가족, 건강.

'나'의 출발은 가족이고, '나'의 건강을 밑바탕으로 삶을 가꿔 나간다.

'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고향인 '춘천'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이를 함께 엮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가족'과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출발한 프로젝트는 '가족'의 범위를 '지역 내 자원봉사자, 세상의 어머니'로 확대해 나갔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아로마 테라피'를 소재로 '힐링 테라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가족의 평안과 지역의 평안! 그 안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플 수 있음에, 작은 손길이지만 힐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느낀점 **지역사회로의** **확대**

일상 속 익숙한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관심사와 나의 시야를 확대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과정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세상은 늘 아름답고 신기했으며, 재미있었습니다.

최대 난관 **건강**

활력 에너지를 충전하는 프로젝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로 인해 저는 심리적으로도 무척 힘듦을 겪었습니다.



'MoM 테라피'의 진행 과정을
도식화해보았습니다.
지치고 아픈 세상의 어머니들
&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직접 호감 가는 향을 찾게 한 후
그것으로 손마사지를 해드리며
삶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까이 앉아 손을 맞대고
나누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진지했답니다.

남은 숙

“

Memory of Mom 테라피를 조금 더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과 힐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네요.
애써 주신 춘천문화재단 여러분, 멘토 Ting, 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o be Continue~ ^^

”



송병숙

낯설고 불편한 상황으로 자신을 밀어 넣고 반응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았고,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취향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획은 목적이 중요하며, 그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과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취향과 관심이 담긴 기획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온 지난 삶을 생각하고,
목적 없이 준비 없이 하루를 지내며 반응하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 부산에서의 개인 프로젝트, 종일 수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도를 직접 걸으면서 오감으로 느끼자고 계획한 것이, 아침 일찍 서두른 덕에 범어사 탐방까지 하게 돼서 기뻤습니다.
- 부산 영도팀과의 약속 시간과 약속 장소를 핸드폰에 저장했는데,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버스정류장에 내려 낯선 골목을 헤매다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찾아간 일도 추억입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구경할 만한 풍경이 있나요? 부처의 미소가 제일 아름답지요”

몽땅의 밀도를 찾아서



목적 없이 지내리

낯설고 새로운 감각을 깨우고 오감에 집중하는
마을버스투어 프로젝트

2023.10.11 ~ 11.2. # 춘천 일대 [춘천시 동면 지내리행 마을버스 등]

나에게 '반응하는 나' 란?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살피거나 생각을 따라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반응은 익숙한 환경보다는 낯설고 불편한 환경이나 경험에서 더 강하게 유발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는 일은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목적 없이 지내리'라는 프로젝트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사회적 규율과 제약에 묵묵히 순응하며 살아왔던 저는 경직된 사고로 창작활동에 자기검열이 강해 늘 갈증을 느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낯선 체험이나 생생한 장소 같은 것은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춘천에서 오래 살아왔지만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은데, 지내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버스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을 때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감각들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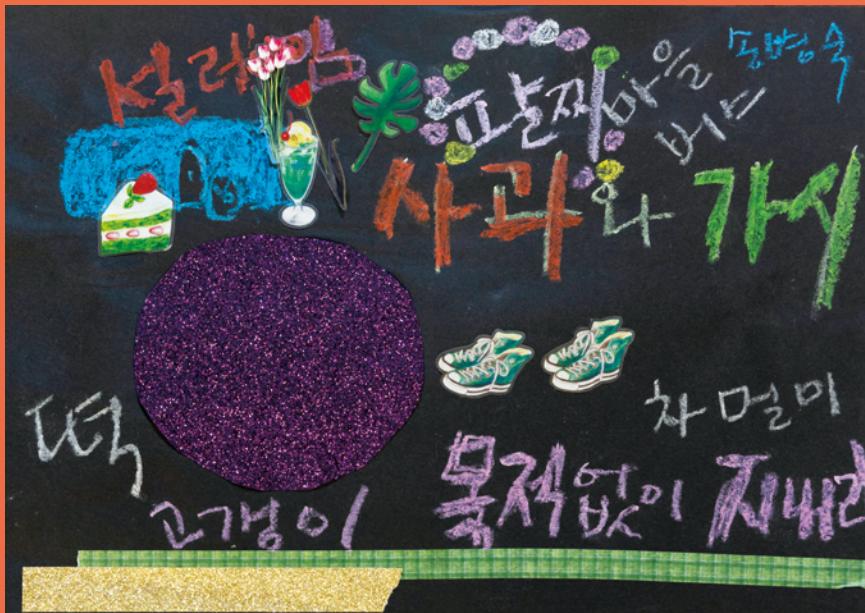


느낀점 설레는 경험

'목적 없이 마을버스 타기'는 늘 자동차만 타고 다니던 사람에게는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만족했으나, 기획자는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해서 기대만큼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획은 철저히 목적을 숨기고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 난관 배차시간이 긴, 흔들림이 큰 버스

마을버스 운행 시간 간격이 너무 길어서 도보 중간에 버스를 탈 수가 없었고, 종점까지 걸어도 다른 버스노선과 연계가 안 돼 난감했습니다. '사북2' 버스로 진행된 이상원미술관 텁방은 자연과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작은 마을버스의 흔들림이 커 멀미가 났습니다.



이번 마을버스 투어로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해보았습니다.

마을버스 투어는 마을의 속살을 볼 수 있지만, 원거리일 경우 차가 많이 흔들려 차멀미로 참가자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다시 깨달았습니다.

송병숙

“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마을버스 이야기,
마을별 설화나 역사 찾아보기 프로젝트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또는 작가와의 북토크,
창작교실 등 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 아카데미 등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



신성희



나를 움직이는 속도, 그것이 제게는 생각보다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충분히 제 안에서 정리되어야

움직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장은 분명 매 순간 추구하는 목표지만,

일정 속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안에서 숙성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앞으로 공연, 전시, 책 등을 많이 봐야겠다고 느낍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나를 기본적으로 알아가는 시간! 이것은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데, 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안의 스타일에 대해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무엇이든 결과가 나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중간의 과정을 프로젝트하고 기획하는 것 또한 하나의 기획이며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몽뱅의 밀도를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

{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해결 모색 프로젝트
2023.10.25 ~ 10. 31. # 춘천 및 서울 }

나에게 '같이 & 가치' 란?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는 일!

혼자서는 할 수 없으나 같이 도모하면 할 수 있는 일들. 집단지성의 힘을 만들고 보여줄 수 있으며,
좀 더 괜찮은 개인, 지역, 사회, 국가라는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해
범죄심리학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적 연결
고리로 보고 있을까? 최근 사회적으로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다수를 향해
벌이는 범죄 발생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각 분야(상담심리, 뇌인지교육, 정신보건 등)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관련 조사 진행을 통해 사회혐오에 따른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신뢰성 강화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심리학, 교육학을
전공한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40~50대가 함께 모여
진행한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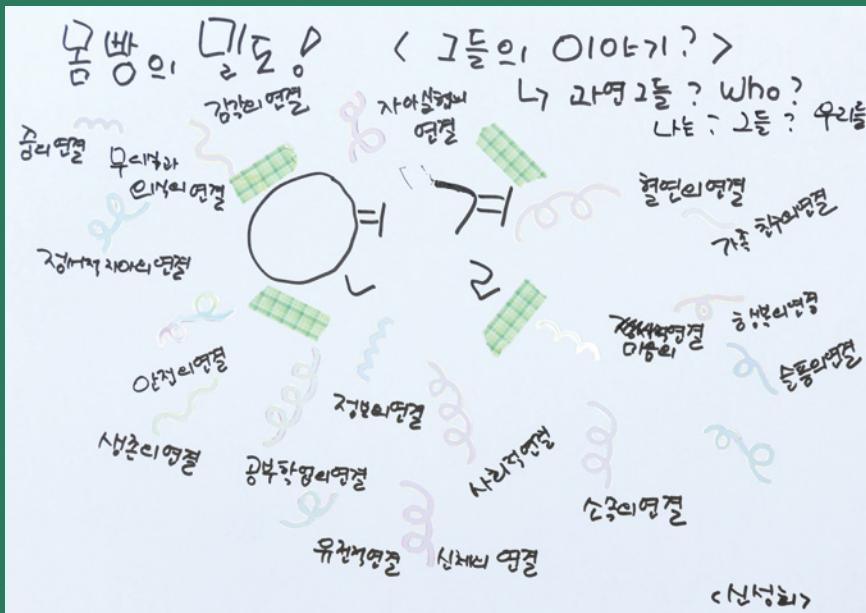


느낀점 예방책과 연결

각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심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연결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난관 인터뷰 날짜 조율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날짜 조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타지에 계신 전문가들과의 미팅
날짜 조율과 시간분배는 최대의 난관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사회로 연결되고 관계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연결과 관계는 우리의 몸은 물론 정신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

인간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를

‘3 바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3개의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건강하다’고 하네요!

사회적 시냅스로 연결된 인간의 뇌 영역처럼

건강한 개인 및 지역 교류를 위해

자연 면역 커뮤니티(정서, 신체, 교육)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성희

”



안현옥



나를 움직이는 속도.... 그 속도는 속도감을 느낄때,

속도를 제어하는 감각을 몸에 익히는 것!

저의 몸과 마음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언제나 만남에 데려다 놓았고,

그곳의 바이브와 에너지를 잘 받아먹고 잘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세포들이 더 잘 알 것 같네요.

행복의 속도, 함께함의 속도, 즐거움의 속도!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기획을 시작하고 기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석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물어볼 데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간절히 멘토를 원했던 상황. 그런데 질문해도 되는 멘토가 떠하니 생긴 것, 그리고 매주 멘토를 만나면 행복하고 살맛이 낫다는 것!

◆ 기억에 남는 대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원 집단 자기돌봄 프로젝트’ 기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시간도 촉박했고, 준비도 미비해서 고민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팀원들과 멘토가 던져주는 한마디 한마디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큰 프로젝트의 입찰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아이디어와 마음이 담긴 조언들은 정말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신박한 파티 버스 (Fabulous Party Bus)

{ 힐러(심리상담 및 예술치유사)의 번아웃 방지와 생산성만을 쫓는
삶에 재미와 유쾌함을 더하는 자기돌봄 프로젝트
2023.10.24. # 춘천 일대 [삼악산 케이블카 주차장 등] }

나에게 '신박한 파티 버스' 란?

젊은 시절 놀지 못했던 나에 대한 보상이고, 힐러로 살아가는 무거운 삶의 탈출구.

심리상담사이자 예술치유사로 활동하면서 마음이 아픈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지치고 힘들어도 잘 놀 줄 모르고 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돌봄에는 익숙하지만, 자기에 대한 돌봄은 뒷전인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었죠. 번아웃에서 벗어나 '땀나게 놀고 싶다'는 바람으로 '신박한 파티버스'라는 수행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버스를 빌려 타고, 여러 캐릭터의 옷도 입고, 도시 속에서 정형화된 나를 잠시 떠나 새로운 나로 분하여 신나고 재미있게 아이처럼 놀아보았습니다.



느낀점 _ 나를 되돌아 볼

'내가 요즘 진짜 많이 지쳐있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이런 내 삶에 건강한 기운을 찾아주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사업과 동시에 진행된 관계로 제 열정과 에너지가 그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최대 난관 _ 버스 아저씨

신박한 파티버스는 버스에 올라탄 모든 참여자가 함께 어울려 땀나게 춤추고 노래하며 자기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버스를 대여했을 때 버스 운전기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에,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놀지 못했던 내 안의 개구쟁이 아이를 소환해, 이동 수단인 버스를 놀이터로 만들어 춘천을 돌며, 신나게 춤추고 놀았던 우리들의 해방구를 소개합니다.

안현옥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또 다른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

이제 시작이지만, 좋은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확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로컬크리에이터로서 저만의 로컬 브랜드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



오미자



싫기만 했던 내 이름이 왜 그렇게 싫은 건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서 시작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찾아보았습니다.

수업에 한주 한주 참여하며 나를 찾는 과정에서, 지난 과거에 묶여 싫다는 말조차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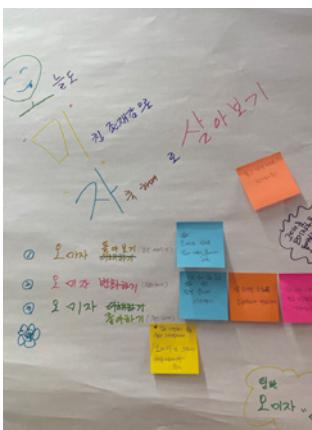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꺼내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니 진정한 나에 대해 물어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물어보는 수업의 속도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저는 ‘미야’입니다”라고 예명으로 자기소개를 하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미야는 이 과정에 잘 온 것 같아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미야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나는 '오미자'

{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이름을 찾기 위한 일상 도전 프로젝트 }
2023.10.14 ~ 11. 2. # 춘천 일대[춘천교대 운동장, 사진관 등]

나에게 '오미자' 란?

버리고 싶었지만 버리지 못했던 이름,
싫지만 싫다고 얘기하지도 못했던 이름,
싫다고 얘기해보니 뭐 별거 아니었는데 '싫어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나의 이름이다.

양구군 대표로 강원도 응변대회에 참가했던 날, '오미국민학교 오미자'라는 이름이 호명되자 방청객과 참가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순간 저는 얼어버렸고, 그날 이후 '오미자'라는 이름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미자'를 부정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이름을 찾기 위해 '일상에서의 3가지 도전'을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 도전1 : 맨발 걷기 (발비단에 느껴지는 낯선 기운과 이완하기)
- 도전2 : 사진 찍기 (웃지 않는 오미자 웃는 모습으로 박제하기)
- 도전3 : 손끝 감각 느끼기 (도자기 핸드페인팅으로 감각 느끼기)



느낀점 _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나 오미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변화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변화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일상의 작은 행동이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 난관 _ 네일아트

처음에 기획한 일상에서의 도전에는 '네일아트'가 들어있었는데, 한참 후에야 네일아트가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기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쁘게 네일아트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우리 엄마는 오미자



- 네 ♥ 은 -

우리 엄마는 항상 시달 예약을 할 때 제 이름으로 예약하시거나 어떤 이름으로 예약하세요...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한번도 끌지 않았지만 대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끌면 해하는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대체로 이름이 독특하다는 생각에 본적이 없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갖는 이름 중 하나나, 모든 동네어가 존재를 떨어뜨리고 생각해보는데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숨기시더라고요. '이름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해보는데 제가 모르는 엄마의 생활에 몇몇 것들이 생각이 들어 쉽게 대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숨길을 약도 묻은 적 남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분명히 이름과 함께 예약하기가 생겼어요. '항가의 부다페스트 티 숲과 신사'에서 외국인들이 '미자'라는 이름이 어려워 '미야'라고 부른 것 때문에 속도를 더해주시는 엄마는 이제부터 '미야'라고 미안과 함께 새롭게 대화하시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이름에 예장을 벗으시는 것을 보고 역시 모든 마음이 깨끗이었어요.

그제서 '미야'로 이름을 한 번씩 다가가시 이후 이번 프로젝트 주제를 '나는 오미자'라고 하고 싶고 친절한 오미자로 나다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나 해보셨는지 모릅니다. 엄다가 갖고 계셨던 지난날의 성적을 '나는 오미자라는 대고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걸기도 하시고 도자기도 만드시면서 'umble'라고 달콤하신 것을 들었지만 사진 찍는 모습을 모여 '이 프로젝트는 '숨겨두고나니''생각했어요.

가장끼리 어울릴 것을 때는 저도 같이 생기고 싶은 때 학살, 악마,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커리어와 일에서 계속 웃으시고 대용껏 포즈로 각을 차지해 카메라에 미소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엄다가 스스로 숨겨온 저만의 모습이었지, 저와 오미자라고 생각했답니다. 진정한 오미자와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으니 정말 프로젝트를 '숨겨두지 않았어요?

비록 프로젝트는 끝이 날지 않으로 특이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숨겨온 당신의 저와 모습을 드러내 누군가보다도 특별한 힘과 사랑을 담아나가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우리 엄마, 오미자 양이 광복해주세요!



'오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가
그 이름을 숨기는 것을 알고
"괜찮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딸은 그것조차
엄마를 속상하게 할 것 같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딸이 진정한
이름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는
엄마를 위해 쓴 글입니다.

오미자

“

2023년 11월부터 시민협의체 '봄바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봄바람은 시민 스스로 문화적 활동을 주도하며

시민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협의체입니다.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문화적 활동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



이경우



나를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

답답함을 안고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같았지만,
결국엔 제 속도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끊임없이 물으며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참가자들과 부산 영도를 방문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절에도 가고 도시버스를 타고 영도를 나오며 부산엑스더스카이에도 올랐습니다. 해운대 해변과 도시, 광안대교, 부산항 대교, 이기대, 달맞이 고개, 동백섬 등 부산의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믹 오션뷰', 정말 최고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문화로 도시를 바꾼다."

(문화란 무엇인지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중) 결국 영도에서 출발한 우리가 이곳(엑스더스카이) 100층에 올라와 있으니, 영도(0°C)에서 백도(100°C)까지 오른 우리들의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몸빵의 밀도를 찾아서



어머니의 의자

{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프로젝트 }
2023.10.20 ~ 11.2. # 춘천 일대(캠핑장 2곳)

나에게 '어머니의 의자' 란?

떠난 이를 더 생각나게 하는 것!

의자 자체로 그리움이고 추억이고 아픔이고 후회고 슬픔이고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하다.

작고하신 시어머니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항상 앓으실 수 있도록 의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트렁크에 캠핑 의자를 넣어 다니면서 가족 외식, 외출, 아이들의 출입식 등 잠깐씩 기다림이 있을 때 의자를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경치 좋은 곳에서 잠깐씩 앓아 쉬다가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의자를 펼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의자는 창고에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나이가 되었지만, 결별의 기억은 추억조차 어렵게 만들고는 합니다. 너무 큰 아픔이라 기억하는 것조차 고통인 그 추억을, 그 의자를 용기 내어 다시 꺼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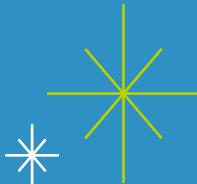


느낀점 _ 에너지 충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풀어내고, 빈 의자에 남겨진 이들의 사랑과 추억을 다시 채워 넣음으로써 다시 살아갈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최대 난관 _ 할머니와의 추억

할머니와 같이 사진 찍은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벚꽃이 필 때만 개방하는 곳이라 다시 가지 못한 점. 그리고 할머니와의 추억의 물건을 전시하고 싶었으나 거의 대부분 처분하고 없어 아쉬웠습니다.



은행잎 가득 물든 오두막에서의 치유,
다시 추억, 그리고 그리움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많이도 부족한 머느리였지만
항상 보듬어 주시고 잘할 거라고
늘 칭찬해주시던 어머니,
울가을 당신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지만,
다양한 문화, 사회적 활동과 현장 속에서
자기 탐색과 반성도 해보고 싶습니다.
익숙한 활동과 순간임에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
활동과 순간을 자아내고 포착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



홍성욱

나를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때쯤이면 무작정 거리로 나와 걷곤 했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한적한 밤거리는 내 앞에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답답해할 필요도, 내가 느리게 걷는다고 뒤에서 재촉할 사람도 없기에

온전히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속도는 다른 대상 대신

온전히 내게 집중할 수 있는, 마치 밤거리의 산책과 같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선 내가 좋고 납득할 수 있어야

적당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마지막 워크숍인 '불편한 것을 찾는 프로젝트'에서 부산 영도를 걸으며 거리 속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았지만, 영도는 마냥 친절하고 여유롭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정갈하게 주차된 오토바이, 집 앞에 의자를 두고 여유를 즐기던 어르신들, 흡연자를 위한 휴식 공간까지. 내게 혐오와 분노를 유발했던 대상들은 한 곳 차이로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내게 닿는 모든 것들은 결국 찰나의 한 곳 차이였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멘토 한 분이 이 놀라운 문구를 내세운 한 아파트 광고를 공유해주셨고, 우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정확히 어떤 관점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아직은 확신하지 못해도, 화나는 상황에는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행동하는 게 우선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몽땅의 밀도를 찾아서



동네방네 릴레이 투어

{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접 기획한 춘천 투어 프로젝트 }
2023.10.27 ~ 11. 2. # 춘천 일대[효자동, 석사동, 퇴계동, 약사명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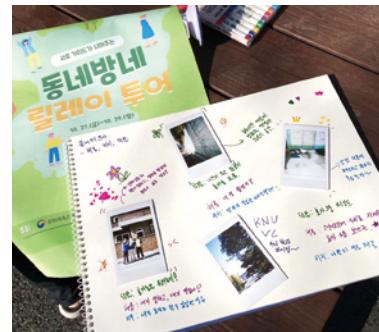
나에게 '거리' 란?

작은 에너지로도 사회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장소이자 우연한 깨달음을 주는 곳.

거리는 내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걷고 돌아다니면 그만.

그래서 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무작정 거리를 걷는 게 좋다.

'어떻게 하면 도시 속 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가 좀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고 프로젝트 기획에 나섰습니다. 7년 전, 대학 입학 면접을 위해 늦은 시간 혼자 춘천에 도착한 저는 누나를 찾아가던 중 캠퍼스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형이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면서 학교 건물도 소개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들을 지나칠 때마다 즐거워집니다. 시민들이 각자의 추억이나 이야기가 담긴 장소를 소개하면서, 스쳐 지났던 거리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동네방네 릴레이 투어>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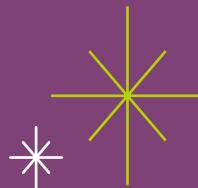


느낀점 _ 가능성의 발견

투어를 모두 마친 날 저녁, 참여자 한 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는 이들에게 일상인 골목이 누군가에는 여행지가 되네요~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순간 나의 시도가 지난 가능성을 발견했고, 도시에서의 일상이 여행처럼 느껴지도록 계속 도전할 동력을 얻었습니다.

최대 난관 _ 의도치 않은 방향

시민이 각자 서로의 가이드가 되어 동네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나누고 공유해보자는 저의 기획의도와는 달리, 가이드 경험이 많았던 한 분이 나서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너그럽게 그분을 배려하고 있어서 제동을 거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기획자로서 저의 목적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모든 참여자가 기분 좋게 제 의견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길거리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
창고에 박혀있던 영화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내 관심의 전부였던 영화!
그렇게 나의 오래전 취향을
새로운 취향에 덧붙였습니다.
나름대로 즐거운 이별이자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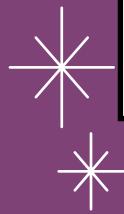


“

각자가 지닌 저마다의 낭만이나 동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현장, 그 어딘가에 제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잠시 잊고 있던 낭만이나 동심을
다시 꺼낼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저에겐 큰 보람과 즐거움입니다.”

홍성욱

”





황현미



몸빵의 밀도를 시작할 때 엄청나게 크고 방대한 것을 머릿속에 가득 넣어 왔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팀과 팀반에서의 대화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더 맞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거창한 거품을 빼고,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내가 가진 값진 보물인 아이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 생각에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더해지면서 나만의 속도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기본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해서 '부산 영도'를 이야기로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영도를 갔을까? 왜? 하필 영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고향을 사랑하고 지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문화도시, 거리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몸빵 팀과 꼭 같이 가보고 싶네요.

◆ 기억에 남는 대화

"꼭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 같아요~."

늦은 참여였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나의 존재감이 빛난다고 생각하니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몽뱅의 밀도를 찾아서



PUSH & TOUCH

{ 아이들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 다자녀 가정 기획자의
양육 방식과 관계성 재구성(직면, 분배, 경청) 프로젝트
2023.10.15 ~ 11.1. # 춘천 일대(카페 2곳, 체험장소 3곳 등) }

나에게 '푸시 앤 터치'란?

그냥 사랑!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채찍이며 사랑이다. 좀 더 세련되고 안정적인 표현으로,
진짜 사랑으로 전달되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지금처럼 수행의 과정을 계속 진행하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푸시와 터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저의 세 아이에게 각각 엄마를 선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푸시'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 너희와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엄마, 언제나 엄마는 너희 편임을 부드럽게 '터치'해주었
습니다.

- **직면 프로젝트** : 카페에서 나와 닮은 1호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나 자신과 직면한 시간
- **분배 프로젝트** : 액티브한 체험과 함께 그동안 양보만
해서 작아진 2호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눔
- **경청 프로젝트** : 레고랜드를 경험하고 평소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 3호에게 1박 2일을 오롯이 선물함



느낀점 미안함, 감사함, 행복감, 짜릿함!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미안함,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감사함과 행복감이었습니다. 기획은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며, 내
눈앞에서 현실이 될 때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최대 난관 나와의 싸움

무엇보다 큰 난관은 처음 교부신청서를 작성할 때 느낀 나와의
싸움이었는데, 지나고 나니 재미난 에피소드인 듯합니다. 중간고사도
포기하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황's 세 여자아이들

Family 이스케이프

직면프로젝트

그래, 너는 내 말이 맞구나
너를 마주 볼 수 있어서 좋았어!

난이도 ★★★★☆

분배프로젝트

너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앞으로를 더 기대해!

난이도 ★★★★☆

경청프로젝트

너의 진심을 알아보아...
너의 마음에 소리를 잘 들어줄께!

난이도 ★★★★☆

나는 너희를 격하게
사랑한다!!

'가족'이란 그룹에서 탈출해,
각각의 개인으로 아이들을 깊이 있게 마주한
3개의 프로젝트를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가족이지만 가끔은 개인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저의 다음 도전 과제는 지역로컬관련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알아보고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사업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특히 우리 신북읍의 문화예술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로컬, 공간, 아이들,
주부'를 키워드로 한 활동을 꾸준하게 확장하고 도전, 기획하고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그까짓 거!! 해보자!!

황현미

”



주성진 멘토 팀

김지영

박서현

박지호

서한솔

윤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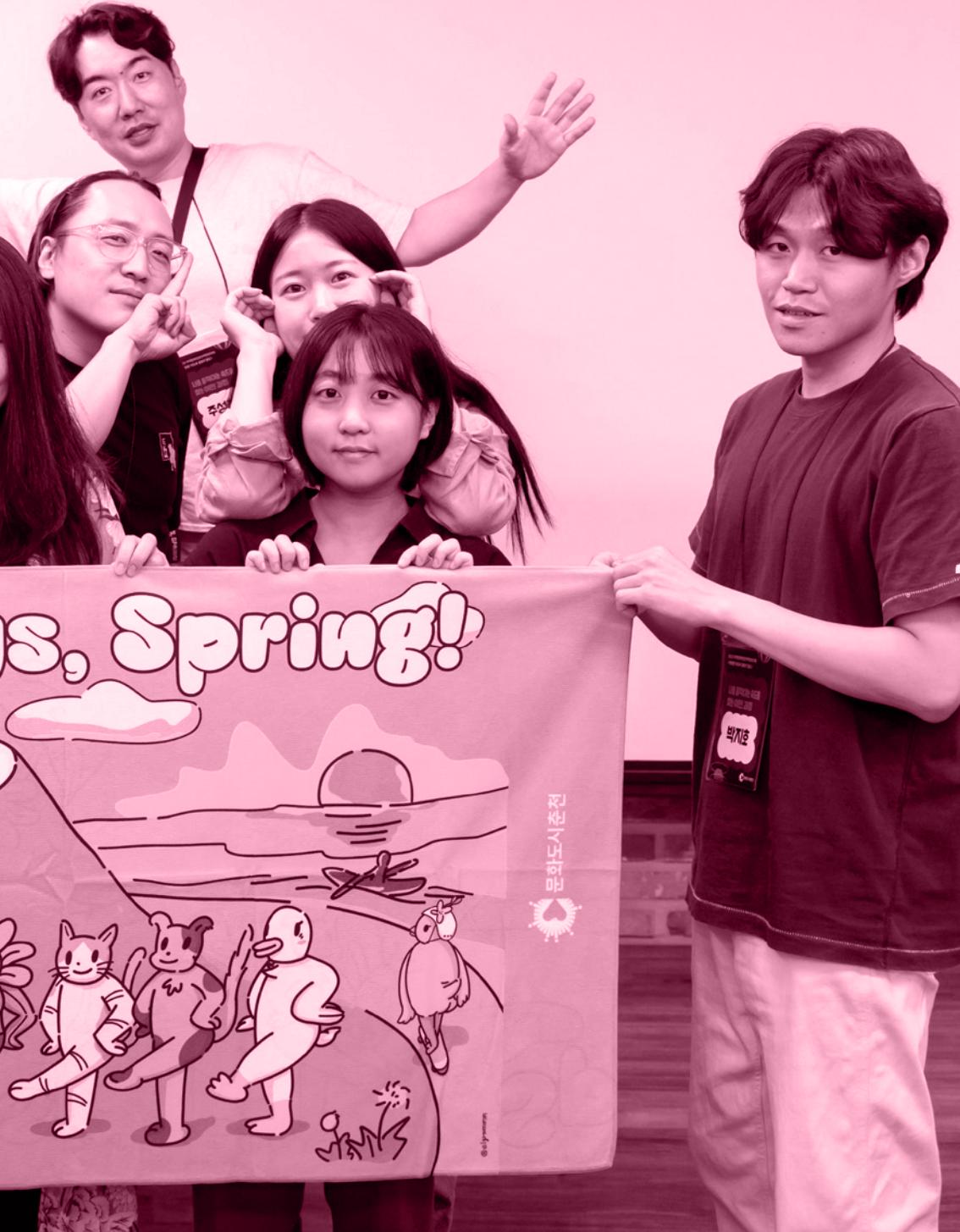
이박연두

이은정

정민채

정하원





춘천



“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들의 분위기가 눈에 띠었다.

아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도 즐거운 이야기, 상상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 구조화된 소개 프로그램이 오히려

사족처럼 느껴졌다. 기획은 늘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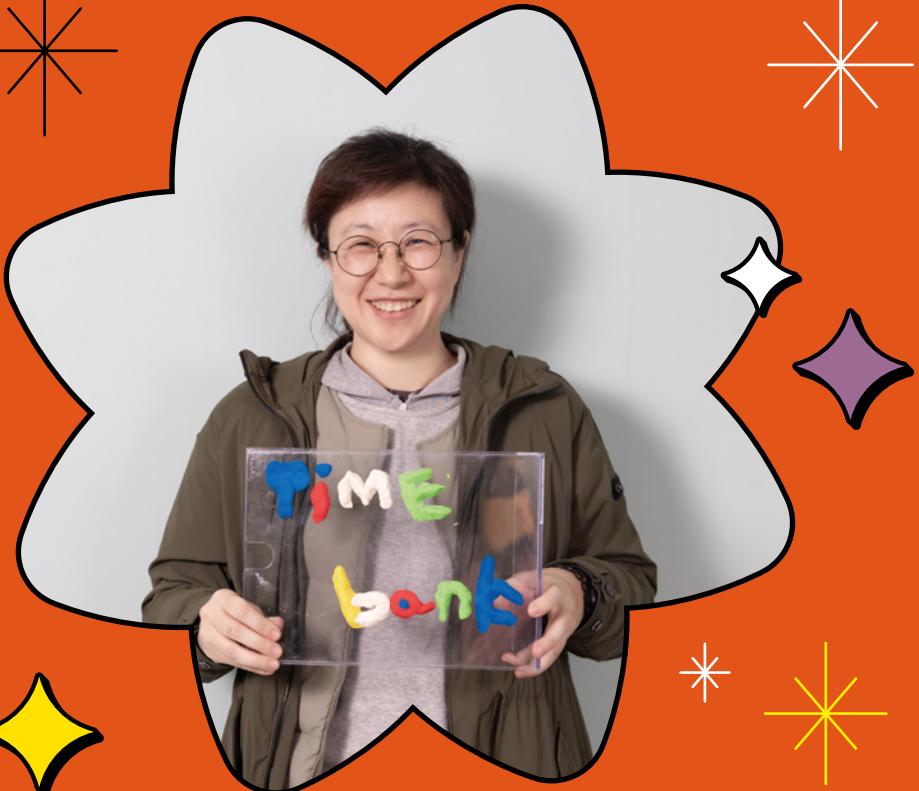
것이 중요하다.

주성진

”







김지영



마음이 바쁘고 혼란스러웠지만 과정이 끝날 무렵에는 다소 정리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더디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중.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던 나는 일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취미 활동을 혼자 즐겼고 사람 대신 공간을 바라보며 혼밥을 했습니다.

생활 패턴에 변화를 주게 된 순간, 작은 한 걸음이지만 나는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조금씩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은 천천히 변화하는 나에게

조금 더 가속도가 붙도록 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주성진 쌤 반 구성원의 이야기를 듣던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만남에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적인 수다를 나누는 것을 길게는 못하는 성향이다 보니 약간의 목적이 있는 만남이 더 편했고,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참가자들의 이야기들로부터 몸빵의 밀도에서 시도할 만한 팁도 얻게 되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상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구성원은 곧바로 무정부주의와 관련하여 기획을 구상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던 그 순간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시간을 담은 상점

{ 돈 대신 시간 화폐로 서로 돌봄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시간 화폐 플리마켓 프로젝트
2023.10.27 ~ 11.2. # 춘천 일대 }

나에게 '타임뱅크' 란?

개인주의의 인정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이타 프로젝트.
소모임을 이용해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확인하며 작은 필요를 채우는
마을돌봄 또는 서로돌봄의 최소한의 형식이다.



시간을 저장하는 은행이라는 의미를 담은 타임뱅크는 봉사한 시간을 저축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 쓰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어주는 사업입니다. 주변 시니어 선생님들께서 타임뱅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체 모임을 좀 더 재미나게 가져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 화폐 플리마켓'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 화폐 플리마켓은 물품을 기증 받고 그 대가로 30분, 1시간 등 시간을 드림으로써 그 시간으로 필요한 다른 물품을 구매하거나, 필요한 때에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느낀점 _
양보하면
즐거워진다**

부담을 내려놓으면 이를 수 있고, 즐거움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의 방향과 폭이 시대, 성별 등 모든 부분에서 각기 달라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양보하면 좀 더 즐거워진다는 진리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난관 _
불협화음**

개인적으로는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하고 싶지만 도전은 겁나는 구성원들과 함께 이벤트를 만들어 가던 중간 과정에서 찾아온 불협의 짙은 며칠. 아,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보여주었을 때였던지, 딱히 진지하지 않았던 그 자체를 받아들이,

혹은 그보다 베스트 그레이지 앤드의 딜란을 대상.

작하지 못한 것, 양심하지 못한 것, 진실이 암울한 것처럼 그리고
기적이 유통되었지만 경제성 차원과 시간 경과에 따라
다른 유형의 영향력이 있음으로써 우리 대로 가능하려는 구현의
방법, 방법론에 구애 받지 않아 그 자체로 방법.

시각적인 timelapse와 그동안의 timebank와
마르크 브리 timebank는 이미가 모두 딱히 진지하지
수행으로 암울한 것, 세상을 이미 +timebank로 이해해
있었고 내가 모든 것과 있었다는 것 뿐.

여전히 쉽지 않고 암울하고 슬프지 않겠지만
해내야만 한다는 경박을 떠칠 수 있게 된,
생각이 많지만 분명하지 않고 시간.
와 '明晰의 미로'인지 저마다에게 암울한 시간



'타인을 돋는다는 것은, 그 누군가와
함께 같은 시간을 즐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소회를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김지영

“

멘토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에 대한 실험보다는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관심과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는

소박한 프로젝트를 자주 가져보고 싶어요.

적립된 아카이빙을 통해

한 발씩 나아가는 지역활동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서현



올 한해 개인적으로 '나'의 목적을 찾기 위해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했던 자유로웠던 제 삶은 사실,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방황의 시기' 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원점에서 '몸빵의 밀도'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가진게 「몸빵」밖에 없었던 제게, 다양한 몸빵이 있었기에 '인생의 깔때기'를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그 깔때기를 꽂아 '나의 속도'로

나아가보려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조언보단 호기심의 눈빛! 묵묵한 지지와 위트있고 다정한 언어들! 매번 명쾌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시는 주성진 멘토님, 그리고 주성파 팀원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스스로를 또렷이 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주마처럼 달리는 것에만 익숙해져 '목적'이 있는 대화만을 찾던 제게 매우 함께 나눈 흐르는 대화가 제 삶에 '필요한 대화'로 어느덧 제 일상에 스며들어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네요.

◆ 기억에 남는 대화

-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야기 中 -

“설문을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된 시간은 처음이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
너무 진지하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요즘 제 자신에 대해 너무 고민과 생각이 많았었는데 질문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 더 알아가게 되어 좋았어요.”

“그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어. 벤치마킹하고 싶은 프로젝트야!”

“나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사람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야.
무엇보다 박서현다운 프로젝트야!”

몽뱅의 밀도를 찾아서



부럽지가 않아 : 헤드현터의 사람추천리포트

{ 사회가 던져주는 성공의 기준, 개인과 사회 간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돋는 실험 프로젝트 「부럽지가 않아」 }
2023.10.30 ~ 11. 3. # 춘천 일대

나에게 '자기방향성' 이란?

사람의 역량을 나타내는 Knowledge(지식), Skill(기술), Attitude(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 생각한다. 쉽게 변할 수 있고, 배운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있는 사람에게 지식과 기술까지 부여된다면?! 올바른 태도를 지닌 '누군가의 고민의 여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영감을 주고 싶었다. 취돌리지 않고,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부럽지가 않은 삶이 되길 기대하며.

"이 사람 진짜 괜찮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제 낙네임 '현터'가 고급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현터'로 변신해 보석 같은 인재를 찾아봤습니다. 경력, 스펙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 찾아내어 소개해봅니다.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를 얻기 위해 다정한 지지 속 다양한 삶의 모양들을 살펴보며 '나'를 비춰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기획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가치는 그 어떤 스펙이나 성공기준으로는 측정될 수 없으니까요!



느낀점 진심의 메세지

'과연 요즘 시대에 사랑이 있을까?' 이 질문이 올해 저를 계속 괴롭히더군요.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지인보다 제3자의 응답이 2배 정도 많았고, 그 답변에는 진심의 응원과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진심의 메시지들이 가득함에 희망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최대 난관 하고 싶은 기획

'하고 싶은 기획'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고, 본업도 챙겨야 하다 보니 충분한 과정 설계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향후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과정과 데이터를 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내 의령의
647의 답변 中 일부

“부럽지 않은 삶이란?” 질문에 대한 전국의 다양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내용을 담진 못했지만 곱씹어보면 좋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비교의 삶에서 해방된 ‘부럽지 않은’ 삶, 여러분은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p.s 누려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헤드헌터’를 찾아주세요)

“

이번 프로젝트에서 페르소나로 부여한 ‘헤드헌터’의 역할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지역에 제대로 함께할 문화인력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데,
살기 좋은 춘천에서 개인의 능력을 잘 매칭하여 건강하게
연결해주는 진짜 중.개.자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서현

”



박지호



나의 취향을 온전히 담아 첫 발자국을 떼고자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취향을 더욱 발전시켜준 것은

매주 목요일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떠올리지 못할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단방향에 그칠 뻔한

나의 여정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냥 걷는 것이 아닌,

여러 방향에 발자국을 찍으며 춤을 추며 나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부산을 여행하며 취향에 맞추어 바라보는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내 관심사와 연관된 기획전시가 그곳에서 때맞춰 열렸었기에, 꼭 가야만 했던 길을 걸을 수 있게 춘천문화재단에서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연우 쌤의 '귀신 버스무리한' 존재를 본 이야기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점자 침투 작전

{ 점자의 날[11.4]을 맞아 점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춘천 곳곳에서 점자를 낯설지 않게 보여주기 위한 게릴라 프로젝트
2023.11.4 ~ 11.5. # 춘천 일대 }

나에게 '게릴라 프로젝트'란?

깨끗한 얼룩이다. 거리의 낙서와 비슷하지만 물리적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흔적을 남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글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접하는 방법이지만, 일상
곳곳에 퍼져있지는 않습니다. 비장애인들의 무의식 속에는 한글
점자라는 언어가 희미합니다. 이 희미한 무의식을 선명하게 만들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게릴라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춘천 시민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단어 '춘천'에 점자 이미지를 덧씌우기로 했습니다. 시내 곳곳
'춘천'이란 단어의 간판에 점자 스티커를 붙였고, '한글 점자의
날' 포스터도 걸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점자를 접하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느낀점 _ 퀄리티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나와 마주했습니다. 의미에 재미까지 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퀄리티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점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본하는 사장님께서는 "포스터가 실제 점자처럼
촉각으로도 느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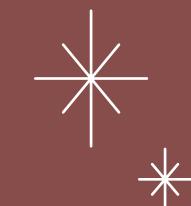
최대 난관 _ 빠듯했던 준비 기간

기획단계에서 걱정하던 처벌받을 염려는 막상 프로젝트를 실행하니
'길티 플레저'로 대체되었습니다. 난관이라면, 많은 상황이 겹쳐 실행
전 준비 기간이 빠듯했던 순간인데, 여러 사람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정을 가로막은 난관이라기보다
성장에 꼭 필요했던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 길티 플레저 : 길티(Guilty-죄책감이 드는)와 플레저(Pleasure-즐거움)를 합성한 신조어로, 어떤
일을 할 때 죄책감-죄의식을 느끼지만, 또 동시에 엄청난 쾌락을 만끽하는 심리



누구나 간접적으로나마 참여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게릴라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회에서 그 연장선으로 기획을 접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귀여운 체험형 작업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지호

“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문화현장은
아직은 마땅히 정해놓은 분야는 없지만,
이번 과정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한솔



이번 과정은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동네목욕탕의 세신사와 같았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면서 문화기획 일을 하며 배긴 굳은살을 뜨듯하게 불려서 때 벗기듯 밀어버렸습니다. 문화기획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으면서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어 보게 되었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가치를 발견하면서 나만의 타당성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획을 해보는 경험은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매번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똑바로 섰을 때 온몸이 따듯해질 정도로 혈액순환이 잘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무정부상태라는 공간을 기획하면서, 혼자서 꼬질꼬질하게 공간을 구성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전기를 연결하고, 전등을 걸고, 락카와 비닐로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벽마다 걸어 올리고 나서 프로젝터로 1969년 우드스톡페스티벌 영상을 봤던. 낯섦과 동시에 달려드는 설렘 그리고 불안함에 내적으로 고요함을 갈구하던 밤입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멘토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해 줄 것이다.”

기획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고,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아주 사사로운 일들조차 기획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몽방의 밀도를 찾아서



Pop up Anarchy Space '무정부 상태'

{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실현해볼 수 있는 장소와 상태 운명 프로젝트 }

2023.10.20 ~ 11.2. # 춘천 일대 [효자동, 석사동, 퇴계동, 악사명동 등]

나에게 '무정부상태' 란?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핑계와 자기합리화로 전철된, 불가항력에 의한 소소한 분노로 인한
빌칙한 상상력의 시발점. 그런 시발점은 아주 멋진 시발점. 최고의 시발시발시발점점점!!!

무정부상태는 불가항력에 의한 무기력을 들어내고 상상력을 제한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뱉어버린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상태가 된다'는 말을 꼬집어 무정부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멋진 일들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언제든 무엇을 위해서든, 24시간 개방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곳. 공간의 이름은 명확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에서 자신만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느낀점
이러나저러나
건물주가 최고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각자의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꾸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부담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간을 볼 때면 기획자보다 건물주가 더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최대 난관
손대면 죽어요

처음 기획했을 때는 불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건물주의 반대로 무산 되었고 대신 전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감전이나 합선 없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합니다.

갓발 없이 바람 아래 모인 사람들아
불을 키고 노래하며 춤을 추자
기쁨을 주드리는 밤소리에 맞춰 불을 치고
들이 없노, 나를 위한 노래를 부르자
서로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손을 불갑고 젖은 불을 빼바며 춤을 추자
두 뻥다시 만날 기 없는, 얼굴이 이의나지
않을 사람들과 포옹하자
그리고 다시 돌아간 이불 속에서,
갓발 없는 세상에서 맨발로 뛰어오는
꿈을 꾸기로.

—무정복 시네마—



낡은 창고에서 벌어진 짧은 축제를
그리며 뭉툭한 손으로 편지를 써봅니다.
느슨하다 못해 너덜너덜하게 연대했
지만, 그 누구보다 촘촘하기도 했던
관계들, 그 얼굴들을 기억하며 보내는
편지입니다. 언젠가 노래가 되어 만나
기를!!

서한솔

“

거대 권력 없는, 총과 폭탄 없는 세상에서 만나요.

No war, On peace

”



운동현



기본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맞춤과정부터 합류했기에

더욱 조급하게 저의 속도를 찾아갔습니다.

느리게 달려야 아름다운 풍경이 보인다고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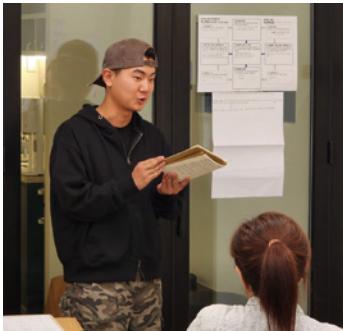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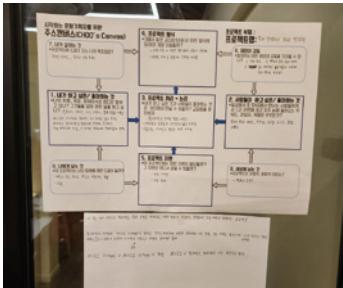
때론 빠르게 목표까지 달려본 후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업무와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저의 능력치와 경험치를 올리며 저의 속도를 찾아 나간 것 같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영도 스터디 투어가 있던 날, 바다 앞 식당에서의 회식이 기억납니다.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져 바다라는 장관을 이루듯, 각자만의 경험과 속도가 어우러져 흘러갔던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인간에게 기본은 의식주이다. 밥과 집은 없으면 죽기에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 하지만 옷은 없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이 옷의 가치는 무엇이고, 이 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나만의 빈티지 브랜드 '타프'

{

빈티지 의류를 기반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2023.10.23 ~ 11.4. # 춘천 일대 [효자동]

}

나에게 '웃' 이란?

하나의 배역.

영화라는 나의 삶을 새로운 배역으로 풍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멋있는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과정.

빈티지 의류 문화를 향유하면서 '나도 이런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라는 과제로 수행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의해 디자인이 정해진 옷만을 입는 것보다는 나의 취향을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고 싶었으며, 빈티지 문화를 옷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이에 빈티지 의류를 기반으로 나의 취향에 맞게 리폼하여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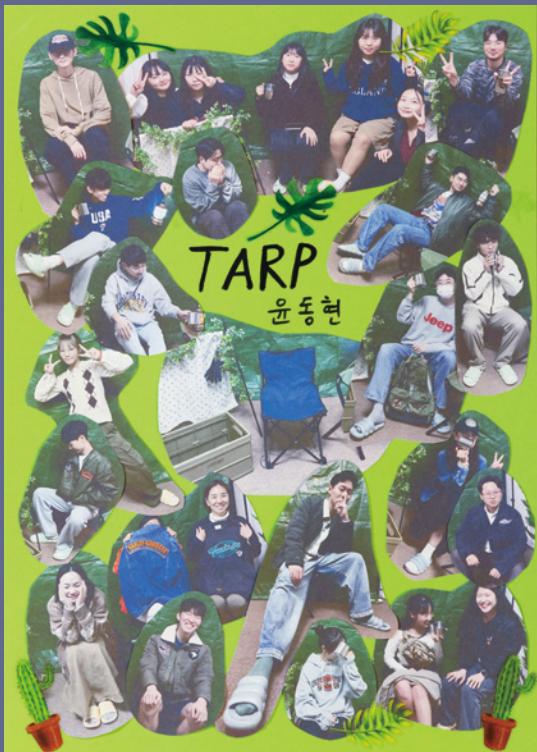


느낀점 _ 나의 브랜드의 나눔

나의 브랜드를 타인이 향유할 때 얻게 되는 뿌듯함입니다. 저는 그저 저의 가치와 취향을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했음에도, 이것이 타인에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키고 취향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문화와 기획이 주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 계기입니다.

최대 난관 _ 브랜딩

타인이 나의 취향을 잘 이해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의류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타프>라는 브랜드명과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이에 맞는 분위기의 의류와 공간을 구성하는 등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가장 표현하기 어렵다는 난관에 마주쳤습니다.



'리품'이라는 고생스러운 프로젝트라,
고생스럽게 방문해준 이들 또한 많습니다.

함께 즐기고 기뻐해 준 한 명 한 명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자연과 같은
웅장함을 만들어냈고,
<TARP>는 그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텐트처럼 낭만 가득한 캠핑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 팝업, 플리마켓 형태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자신만의 색깔과 취향을 명확하게 해주고,

여러 브랜드가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문화행사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기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이들에게도 현장은 부담 없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

윤동현





이박연두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와 방향성을 찾으라는 말은
나를 더 나태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건
월식 멘토님이었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주성파였습니다.
기본과정이 끝나고도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한 주캔버스가 저는 마음에 걸렸고,
너무 벅찬 지금의 현실을 우선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정의를 내리지 못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벅차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나를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11월 어느 목요일 밤, 서한솔 님의 '무정부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누더기 옷을 입고 공연자들이 품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무정부상태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다 내려놓으면 모든 게 행복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핸드폰에 메모를 써 내려가며 나는 앞에서는 웃었고, 뒤에서는 울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기본과정 둘째 날, '모두의 살롱 후평'에서 "술을 좋아한다"는 나에게 김홍열 쌤이 말했습니다.

"저보다 통도 작으시면서…" (키 작다고 놀리는 건가…)

그 외 인상적이었던 대화들.

- 집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
- 10분을 상상하면 기획이 된다.
- 오감을 활용한 기획, 일상에서 보이는 것이 기획이다.
- 기획이라 쓰고 삶이라 읽는다.
- 피로사회: 자신을 잊어버리는, 내가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삶의 주체성과 압박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몸빵의 밀도를 찾아서



오늘을 특별하게, 밀도있게 '몸빵필름'

{ 유한한 영상필름을 사용하여
몸빵의 밀도와 속도를 담아내는 프로젝트 }
2023.10.21 ~ 10.23. # 춘천 일대

나에게 '주성파' 란?

필름카메라!

한 것을 찍기 위한 고민과 신중함, 기다림과 기대.
주성파도 늘 그랬다.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린 늘 신중했다. 편안한 대화로 우리를
기록하던 셔터 같은 주성진 멘토님. 깨알 같은 빛이 되고 조리개가 되었던 우리들.
그렇게 우리들의 필름카메라로 완성되었다.

이 사업의 지원신청서에 “나는 일상의 다정함이 좋고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썼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담고, 도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늘 말해왔지만,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며 사는 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민채 님을 도와 ‘몸빵의 밀도’ 참여자 중에서 필름 영상 촬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감성적인 기록물로 남기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느낀점 '함께'가 주는 힘

기획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 '아무말 대잔치' 같은데 잠깐 지나고 보면 똑똑 만들어져있는 정민채 님의 회의록 정리와 구체화에 늘 놀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도생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대 난관 결국 내 프로젝트는 없었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은? 오롯이 나를 위한 기획을 하려다 범위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주성파 멤버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를 위한 나의 프로젝트는 없었다는 난관이 있었지만, 민채 님과 함께 한 시간 덕분에 저는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Julie

여우의 밀도

날으로 어떤 능장과 활동에서 만나 볼 수 있을까요?

'이박연두'를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저만의 속도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박연두로 에이드와 연회의 대표로

남자는 결코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몽빵 참여자들의 '어떤 수행'을 찍어
내고 참여자들만의 색을 담아냈습니다.
1초의 시간이 서로에게 어떤 속도로
나타날지 아날로그적인 밀도가 가득한
결과물을 기다리는 시간 내내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박연두

“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나를 그대로 내보이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박연두를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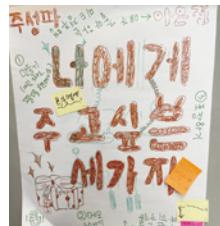


이은정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새로운 관계 맺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다시 첫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궁금하고,
불현듯 생각나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문득 주성파 팀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이 사람에게 어울릴 것 같고, 저런 건 또 저 사람에게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 낯선 만남이 익숙해지는 순간, 내가 조금 덜 낯설고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졌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잡담하듯이 각자 이야기를 꺼냈는데,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유지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큰 배려 없이, 푸념 섞인 속마음을 투덜 대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냥냥펀치

{ '돌봄'의 영역에서 동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는 보은 프로젝트 }
2023.10.26 ~ 11.2. # 춘천 일대

나에게 '냥냥펀치' 란?

동네 고양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반겨주는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다.
고양이의 보은을 빙자한 사리사욕의 결정체이자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 수 있는지 다시 느끼게 해준 무지하게 귀여운 고양이 밭이다.

사는 것보다 만드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성향과 취향을 반영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흙으로 만들었던 고양이 문진(연필꽂이)을 만들고, 동네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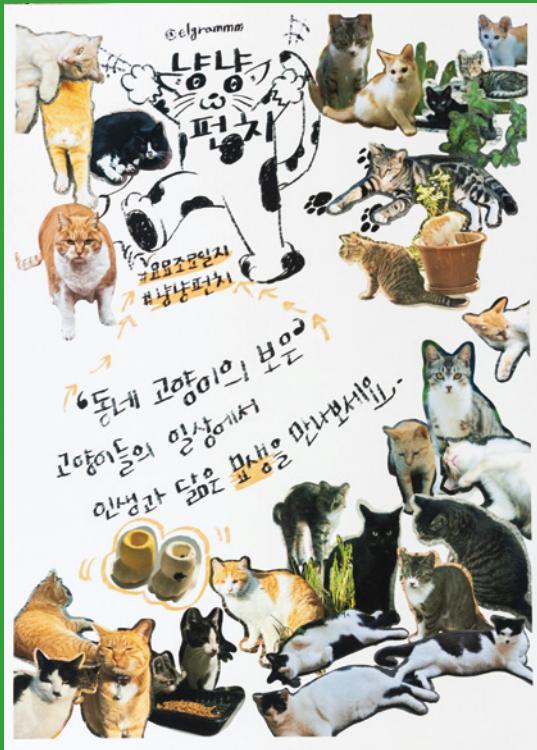


느낀점 _ 나다운 기획을 찾다

매주 만나는 멘토와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존에 자주 접했던 '기획'의 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과주의에 익숙해져 과정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기획을 포기하고 싶기도 했지만, 나다운 기획의 형태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최대 난관 _ 결과에 집착하는 나!

고양이 문진을 제작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좀 더 귀여운 디자인을 찾게 되면서 제작과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2~3일 동안 밤낮을 새면서 제작일정을 맞췄는데, 역시나 결과에 집착하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낭낭편지' 프로젝트에서 받은
 '동네 고양이' 사진을
 꼴라주로 모아보았습니다.
 동네 고양이들 사이에서 나와 닮은
 고양이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

성과를 위한 다수의 선택보다
남다른 시선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고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

이은정





정민재



멘토 반 멤버들과 끊임없는 대화로 찾아갔습니다.

일상의 중독, 귀신, 고양의 상태, 철학 등 지금껏 생각해보지 못한

지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나의 판단을 세우면서 나의 인생에서, 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갈피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심과 자신감을 얻고 나다운 방식으로 추진력을 달아

움직인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부산 영도에서 주성진 멘토님 반 사람들과 곰장어를 먹으면서 기본과정에 대한 추억이나 소감, 춘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다른 반과 다르게 유독 끈끈한 커뮤니티가 될 것임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 기억에 남는 대화

키오스크와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노인들도 공부하고 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나는, “사람이 아닌 키오스크를 사람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꿀 생각을 해보자”는 주성진 멘토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문화기획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몸빵의 밀도를 찾아서



오늘을 특별하게, 밀도있게 '몸빵필름'

{ 유한한 영상필름을 사용하여
몸빵의 밀도와 속도를 담아내는 프로젝트 }
2023.10.21 ~ 10.23. # 춘천 일대

나에게 '필름 영상' 이란?

제한된 시간에 하루의 과정을 담아야 할 때, 지금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신중하게 촬영해야 했다.

지금의 빛이 어떤지, 지금 무엇을 찍는 게 좋을지, 지금 잘 찍고 있는지…

지금을 세심히 관찰하고 충실히 즐겼을 때 아름다운 지금을 담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올해는 평소와 다르고 특이했던 그날의 지금을 담고 선물할 수 있었다.

처음에 공공문화기획으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머리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민은 많았지만 잡히는 게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올랐고, 그 중 하나인 필름영상 찍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필름으로 무엇을 찍으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프로젝트가 정신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다른 참여자들의 모습을 담아주는 '몸빵필름'이었습니다.



느낀점 _ 행동, 언어, 태도

다른 참여자들의 프로젝트 현장을 다니면서 내가 배워야 할 점, 참여자들의 센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행동과 언어, 태도에 대해 혼자 느낀 바가 많습니다. 2주 동안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최대 난관 _ 게으름 vs 오기

발품을 팔며 춘천 곳곳에서 진행되는 참여자들의 프로젝트를 찾아다닐 때, 게으른 페르소나와 꼭 다 다녀볼 거라는 오기가 생긴 페르소나의 충돌이 꽤 여러 번 있었네요.

오늘을 특별하게, 밀도있게!

몸빵필름

2023.10.20

2023년, 가장 나다운 기획자들과
영화 같은 인생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오늘을 잊지말고 간직해주세요!

이박연두 | 정민채



다시 돌아오질 않을
2023년 가장 나다웠던 순간,
그 모습을 담아낸 필름을 나눠요.
생소했던 생각을 통해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믿고
과감하게 시도했던 새로운 기획!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관찰하고
표현했던 여러분들이
이 필름에 담겨있습니다.

정민채

“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 이벤트를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가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익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아닌,
내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파악하고
잘 표현하는 글도 써보고 싶습니다.

”





정하원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정에 함께한 이유는

뭔가 하고 싶기는 한데 무얼 해야 할지 몰라서였죠.

들어와서는 ‘그래서 뭘 해야 하지?’ 하는 질문 속에서 답을 얻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타인과 나를 탐구하며, 나만의 속도를 찾아갔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속도를 찾아서



◆ 기억에 남는 순간

어떠한 순간을 가리켜 말하기보다는, 매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로부터 저는 진심의 위로를 가득 받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감동이다”, “넌 멋지다” 그리고 제 말에 환히 웃어주고 공감해준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몽빵의 밀도를 찾아서



식태기 극복 프로젝트: 안녕, 식물씨

{ 반려식물과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에 대한
환기와 관계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 }
2023.10.21 ~ 10.23. # 지역 곳곳

나에게 '식물' 이란?

사랑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밟기도 한 존재.

식물을 사랑해서 식물가게 사장이 된 덕업일치의 장본인이지만,
행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식물가게는 행복할 수만은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런 30대 청년 사장의 식태기 극복 과정이기도 하다.



타인의 다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권태기를 겪는 커플들이 극복을 위해 여행을
가듯, 식물과의 식태기를 극복하고자 식물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좋아했던 식물 키우기가
일이 되어버려 즐거움이 사라진 혐망함, 식물
때문에 어디를 가지고 못하는 불안함, 식물로

재미있는 걸 해보려다 지치게 된 마음들을 안고
식물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려식물이 타고 있어요'라는 문구를 차량에
부착하고 카페, 맛집, 핫플도 가고 숙박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통해 고난, 역경, 즐거움을 저의
인스타에 하나하나 기록해보았습니다.

느낀점 또 다른 길의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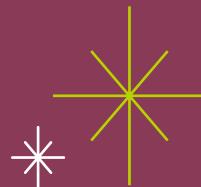
지극히 개인적인 프로젝트 <안녕, 식물씨>를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다양한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하원의 안녕, 식물씨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정하원입니다. 식물가게 “풀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이용해 유익하게 쓰고자 합니다.

sikmo.ol

↳ 저는 꿈 깊정과 인화식물 애용했어요 ^__^
활화는 사친!! 통경상!! 그걸 @sikmo.ol 를 들려와서
저의 프로젝트를 막아주세요! 봄



반려 식물과
여행을 더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봐주십쇼♥
@sikmo.ol
저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
저의 여정이 오롯이 담긴
SNS를 직접 흥보해봅니다.

정하원

“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다’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았으니, 이제 즐겨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식물가게 주인, 문화기획자, 놀기 대장 정하원입니다.

”



‘어떤 과정’을 마무리하며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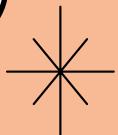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지만, 누구도 크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잠깐의 정적을 불러일으켰다가 곧 모두의 웃음을 터트리게 만드는 농담. 분명히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임을 알고, 특별한 새로움이 없는 제품이 틀림없는데, ‘저건 꼭 사야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홈쇼핑 쇼호스트의 구라와 제스쳐. 모두에게 낯선 움직임과 소리로도 객석의 모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결국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공연. 나는 이런 기획적인 것들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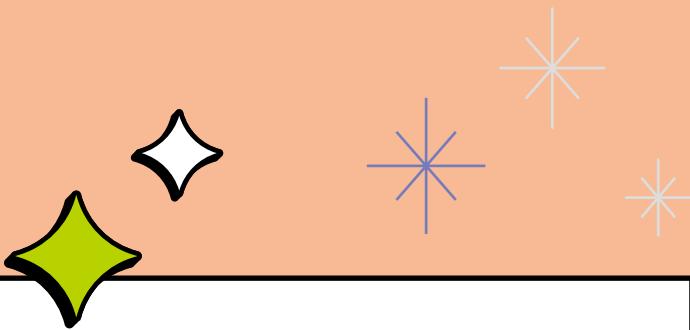
문제는 그러다 보니 ‘기획적인 것’에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식당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읽다가도 어색한 문장을 보면 더 ‘기획적’으로 고쳐 써주고 싶다. 백화점이나 병원의 동선 안내를 보다가도 색이나 모양이나 위치를 이렇게 바꾸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텐데 하며 다시 디자인하고 싶어진다.

길거리 공연을 보다가도 무대 방향을 90도만 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을 텐데 생각한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정성스런 저녁상을 맞이하고도 저 요리를 어떤 그릇에 담아 어떻게 서빙했다면 더 맛있어 보일텐데 하는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 가끔씩 사람도 더 ‘기획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저 사람이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면,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면, 행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면 하는 생각이.

그래서 돈을 받고 기획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사실 무척 신이 났었다. 그리고 그 기획을 가르치는 과정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상황을 설정하고, 미션을 부여하고,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 나누고, 아이디어를 보탰다.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번 춘천 과정은 도전이었다. 이곳에서 내가 한 일이라고는 대화, 끊임없는 대화가 다였기 때문이다. 구조를 더 기획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이곳엔 월샘이 있었다. 월샘과 다사리문화기획학교를 함께 했었지만 그때는 시간이 워낙 충분했기 때문에 월샘의 언러닝-무구조와 나의 구조를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번엔 선택이 필요했고 결국 내가 관여한 과정 중 가장 덜-기획적인 구조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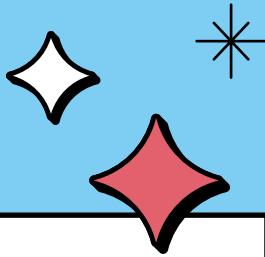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져 갈 때쯤, 이려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커질 때쯤 원가 어떤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에 서로의 생각을 더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일을 벌리고, 결과적으로 상상 밖의 실천들이 (급박한 시간 안에도) 결국 펼쳐졌다.

분명 우리가 일주일에 서너 시간 함께 수다를 나눈 것 뿐인데 말이다.

내가 기획적인 과정, 구조화된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벽에 부딪쳤던 부분은 ‘동기’에 대한 부분이었다. 기술은 알려 줄 수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은 만 들어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다. 춘천 과정을 지나며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느꼈던 벽은 내가 타인의 동기를 ‘기획’하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든 벽이 아니었을까? 목적을 정하고 떠나는 여행이 진정한 방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방향을 정하고 하는 생각이 다다를 수 없는 기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동기라는 건 결국 그 기분에서 나오는 것을 아닐까? 함께 나눈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함께 나눈 이야기의 기억이 동기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어떤 과정을 마치 고도 풀리지 않은 고민고민.

어떤 과정을 함께 한 멘토의 속사정

‘어떤 과정’을 마무리하며 – 2



마음껏 관찰하고, 질문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를’을 만드는 시간.

어떤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설명회, 참가자 모집, 기본과정과 맞춤과정을 진행하며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지역에서 이 과정이 필요했던 참여자들이 이 시간으로 자신을 만나고, 활동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설렘이 있었고, 10년 이상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온 문화현장의 전문인력을 위한 양성과정과 어떤 차별화 또는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며, 이 과정이 잘되길 바라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 나눈 결론으로는 ‘스킬’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닌, ‘함께하는 과정’, ‘질문하고 사유하는 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형보다는 비정형으로, 단계적인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는 틀에 끼워넣기보다는 각자의 속도를 읽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사전에 봉쇄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 무게중심을 두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자신을 0.0000018도라도 바꿔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나”라는 멘토의 말처럼 ‘어떤 과정’은 완성형 기획자를 배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무엇을 관찰하고 사유하고 질문하는 ‘어떤’ 기획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과정(기본과정, 맞춤과정)을 함께 한 30명의 참여자, 7개월 100시간 이상의 시간 이후 만들어갈 영향력을 단시간에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해가는 장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입체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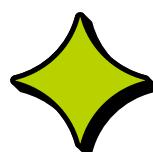


로 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존중하게 되는 장면, 기획자를 닮은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장면 속에서 지역 안에서 느슨하지만 필요에 따라 강력한 관계와 사유의 시간을 확보한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멘토, 참여자-참여자, 멘토-멘토, 멘토-담당자 간에 단발성이 아닌 연속적인 관계성을 만들며 ‘지금 당장 나를 모두 보여줘야 하는’ 조급함이 아닌 ‘시간을 두고 나의 다양한 모습들을 꺼내보일 수 있다’는 안정감이 과정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 한 담당자도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필요한 과정이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암묵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데는 소화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함께 했던 이들이 지역에서 만들어갈 다양한 시도와 수행을 응원해주시길 바라며, 필요한 환경과 과정을 만들 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어떤 과정을 함께 한 담당자의 속사정



30주

7개월

100시간 이상을 함께 한 이들

기본과정

고화정 기은진 김보경 김선아 김수정 김태용 남홍숙
박선정 박지호 서한솔 송병숙 신소영 안현옥 오미자
이경우 이루다 이박연두 이상록 이은정 임다은 정민채
정예빈 정하원 조영웅 흥성욱

맞춤과정

김선아 김수정 김지영 김태용 남홍숙 박서현 박선정
박지호 서한솔 손지민 송병숙 신성희 신소영 안현옥
오미자 윤동현 이경우 이루다 이박연두 이상록 이은정
정민채 정하원 조영웅 흥성욱 황현미

멘토

김월식 김희연(팅) 주성진

담당자

권가영 김홍열 위최서린

무한한 지원

춘천문화재단 문화기획팀



2023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적당한 각도와 결정의 밀도〉 과정기록집

어린 과정

발행인 최연호

발행처 재단법인 춘천문화재단

발행연월 2023년 11월

기획 춘천문화재단 문화기획팀

에디터 김연주

사진 촬영 이원일

디자인 및 기록집 제작 불개미커뮤니케이션



여편 과정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춘천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

후원



춘천시